Collection @ chosun

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38509

Collection @ chosun

2009년 8월

박사학위 논문

한국 남자캐디에 대한 문화기술적 이해

조선대학교 대학원

체 육 학 과

윤 경

Collection @ chosun

한국 남자캐디에 대한 문화기술적 이해

An Ethnographic Understanding on Korean Male Caddies

2009년 8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체 육 학 과

윤 경

Collection @ chosun

한국 남자캐디에 대한 문화기술적 이해

지도교수 김 응 식

이 논문을 이학박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4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체 육 학 과

윤 경

Collection @ chosun

윤 경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 범 식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원 영 두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조 동 진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정 명 수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응 식	(인)

2009년 6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Collection @ chosun

<목 차>

ABSTRACT

Ⅰ. 서 론 ····· 1

A. 연구의 필요성 ····· 1
B. 연구 목적 ····· 6
C. 연구 문제 ····· 7
D. 연구의 한계 ····· 8

Ⅱ. 이론적 배경 ····· 9

A. 문화 ····· 9
1. 문화의 정의 ····· 9
2. 문화의 구조 ····· 10
3. 하위문화의 정의 ····· 11

B. 스포츠 문화 ····· 12
1. 스포츠 문화의 정의 ····· 12
2. 스포츠 하위문화 ····· 13
3. 골프 하위문화 ····· 14

Collection @ chosun

Ⅲ. 연구방법 ····· 27

A. 연구 설계 ····· 27
B. 연구자의 위치 ····· 29
C. 연구 참여자 선정 ····· 31
D. 자료수집 ····· 32
1. 개방형 질문 ····· 33
2. 심층면담 ····· 34
3. 관 찰 ····· 35
E. 자료 분석 ····· 37
F. 자료의 진실성 ····· 41
G. 연구의 윤리성 ····· 41

Ⅳ. 한국 남자캐디에 대한 이해 ····· 43

A. 한국 남자캐디의 특성(特性) ····· 43
1. 캐디를 시작하게 된 동기(動機) ····· 43
2. 캐디로서 목표(目標) ····· 45

B. 직업캐디로 적응 ····· 46
1. 가장 힘든 일 ····· 46
2. 여자캐디와의 관계 ····· 47
3. 골퍼와의 관계 ····· 49
4. 여가 활동 ····· 52

dCollection @ chosun

C. 직업의식 ····· 53
1. 서비스 정신 ····· 53
2. 책임감 ····· 55
3. 자부심 ····· 56
4. 전문성 ····· 57
5. 장래성 ····· 59
6. 사회적 인식 ····· 61
7. 직업 만족 ····· 63

D. 일탈 ····· 65

Ⅴ. 결론 및 제언 ····· 71

A. 결 론 ····· 71
B. 제언 ····· 73

참고문헌 ····· 75
부록

Collection @ chosun

<표 목차>

표 1. 2008년 전국골프장 총계 현황 ·····19
표 2. 2008년 전국 운영 중인 골프장 현황 ·····20
표 3. 2008년 전국 건설 중인 골프장 현황 ·····20
표 4. 2008년 전국 미착공 골프장 현황 ·····20
표 5. 2003년 전국골프장 총계 현황 ·····21
표 6. 전반적인 골프문화 관찰 현황표 ·····30
표 7.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 배경 ·····31
표 8. 심층 면담 노트(예) ·····35
표 9. 관찰노트(예) ·····36
표 10. 한국 남자캐디 문화에 대한 최종 템플릿 ·····39
표 11. 연구문제에 대한 주제 분류표(예) ·····40

Collection @ chosun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의 진행과정 ·····28

Collection @ chosun

ABSTRACT

An Ethnographic Understanding on Korean Male Caddies

Yoon Kyoung
Advisor : Prof. Kim Eung-Sik Ph. D.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identity of male caddies in Korean sports culture and to understand their subculture.

Research method employed for achieving these goals was ethnography which is easy to describe and interpret cultural or social groups and systems among five research traditions suggested by J. W. Creswell (J. W. Creswell, 2007).

Data were collected by direct observation of caddies at golf courses in Jeonnam, Jeonbuk and Jejudo, open-ended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them and secondary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terview and e-mail.

Data collected from open-ended questionnaire, observation and taperecording were transcribed by computer, key themes of text materials were made as template to conduct template analysis, and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obtained on the basis of subculture areas made by male caddies at golf courses.

First, male caddies have the following personal characters. They began to work as caddy with a view to raise fund for getting another job or managing golf-related business or being pro-golfer. Most of them chose their job to make money and ensure their training place to be pro-golfer or earn economic profit because they consider caddy is the job to get high profit in a short time.

Second, male caddies said that the personal neglect was the biggest trouble to them, although keeping close relationship with female caddies and complex and various relations with male and female golfers.

They often drink to get rid of their stress from personal disregard and enjoy exercising and reading as well as playing golf during their free time. The work field where friendly relation exists between male and female caddies had good influence on male caddies' adaptation to their job. But, male golfers expressed their reluctance

Collection @ chosun

to meet with male caddies while female golfers welcomed to them.

Third, male caddies have the following awareness of their job.

1. They think that they are working with the greatest service spirit than any other jobs.

2. Conflicts with golfers and instability of their job lower their responsibility and the sincerity of their duties.

3. They show high pride for their job in that it can be conducted by everybody but cannot be done by anyone.

It is possible to attract male caddies with a bait of high salaried job, but construction of a desirable caddy culture is their own pride.

4. They are aware of their job as professional.

5. They don't think their job is promising.

They consider their job is not stable as lifelong job because of low social recognition and age limited to young adults.

6. Male caddies consider they have a job of short lifespan and negative and closed awareness of their job. They don't want to publish their job because others view their job as humble .

7. Since they have many restrictions in their social life such as personal neglect of caddy by some golfers, stress in the process of play at some golf courses and irregular working hours, they always have intention to transfer their job.

Fourth, male caddies have language deviation culture such as tacit consent of violation of rules by golfers, absence without leave after drinking, score manipulation and Buldang meaning night duty as punishment. And they also have another deviation culture to endure sexual harassment by indirect language abuse, violent language and even violence from some golfers.

As described above, male caddies perform their duties with the thorough spirit of service and pride as professional although they experience personal neglect in pursuit of pro-golfer or high income. But, they always have intention to transfer their job because of view of caddy in Korea that shows negative eyes toward male caddy, the lack of their responsibility due to poor social recognition of male caddy and closed view of job due to personal neglect and sexual harassment.

It is expected that 'male caddy culture' is growing as a promising male job through professional education of caddy using etiquette education, Caddy Golf Association and special education agency including colleges and universities from the stage of entrance to golfer.

Collection @ chosun

Ⅰ.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골프는 세계적으로 즐기는 스포츠종목 중 하나이다. 현재 전 세계에는 31,857개의 골프장이 있다. 그 중 미국이 15,400개로 단연 많다. 미국 골프장은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중국, 한국, 등 골프가 널리 퍼진 81개 나라의 골프장을 합한 것과 비슷한 규모이다. 미국 다음으로는 영국(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스를 합한 것)으로 2,645개의 골프장이 있고, 일본이 2,440개로 그 뒤를 이었다. 스웨덴은 422개, 골프장이 없을 것 같은 아이슬란드에도 56개의 코스가 있다. 최근 골프장 건설이 붐을 이루고 있는 중국은 230개의 골프코스를 갖고 있다. 한국은 196개, 북한은 2개였다. 전 세계에서 한국은 18번째로 많은 골프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세계인구는 약 62억 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 중 0.94%인 5,800만 명이 골프를 한다고 집계했다. 인구 대비 골프장이 많은 국가로는 스코틀랜드(9,379당 1개 골프장) 뉴질랜드(10,374명) 호주(11,063명)등이 꼽혔다. 미국은 인구 18,514명당 골프장이 하나 꼴이었다. 국토면적에 비해 골프장이 많은 나라는 싱가포르(10평방마일 당 하나) 잉글랜드(27평방마일) 일본(59평방마일) 등의 순이었다. 인구가 일천 만 명 이상인 국가로 골프장이 없는 곳은 우크라이나, 수단, 예멘, 말리, 벨라루시 등이었다. 이는 2년마다 세계 골프장 현황 및 '1백대 코스'를 조사, 발표해 오고 있는 미국 골프 전문 월간지 골프다이제스트 5월호에 실린 내용이다(한국골프장경영협회, 2005).

세계 인구 0.94%인 5,800만 명이 31,857개의 골프장에서 운동을 즐기고 있으며, 이중 가장 많은 골프장을 보유 하고 있는 미국의 대중매체에 비춰진 골프에 대한 이미지는 ‘생활체육’이다. 이는 골프가 정치, 환경, 사회문제와 관련한 대중매체의 보도내용은 거의 찾아 볼 수가 없고, PGA, LPGA, Nation - wide, Champions tour 등의 골프경기 정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PGA tour 등의 골프 협회 관계자 및 대회관계자들은 프로대회 및 각종 자선기금 마련 아마추어 골프대회를 통한 수익금 등을 골프 꿈나무 육성 프로그램인 first tee 프로그램, 그 외 도움을 필요로 하는

Collection @ chosun

다양한 단체 및 지역사회 기관 등에게 엄청난 액수의 자선기금을 제공함으로써 골프가 그들만의 축제가 아닌 모든 대중들에게 이익을 분배해주는 긍정적 이미지를 많이 보여주고 있다(김찬룡, 2006).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골프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가 부정적인 면이 없진 않지만, 이제 서서히 생활스포츠로 골프를 즐기기 시작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남자들은 여자들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있으며, 사회활동에서 시달리는 각종 스트레스를 골프를 통하여 해소하고 있으나, 여자들은 남자들 보다 사회활동이 적은 관계로 스트레스 해소보다는 쾌적한 골프장의 시설이나 환경이 좋아서 그 매력에 골프를 선택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김홍백, 2003). 또 방민준(2002)은 '핸디캡에 담긴 철학'이라는 글에서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골프 규칙 '핸디 캡(Handi cap)'을 제시하면서 핸디캡 제도를 골프에 도입했다는 것은 골프가 신사도를 말하는 스포츠이며, 또한 이것은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점수를 접어준다는 취지에서 골프가 남녀노소의 평생운동으로서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고 기술하였다. 또한 이 제도는 강자가 늘 이기고 약자가 늘 지는 법이 없다는 '게임'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모든 사람이 편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가장 민주적인 게임이 골프라고 골프의 미학적 매력을 설명하고 있다.

각종 언론 매체들은 2008년 1월10일-13일까지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소니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한 '탱크' 최경주가 2008년 3월 2째주 세계6위(www.owgr.com)에 랭크되어 있다고 앞 다투어 보도했다. 그리고 1998년 8월 17일 Time지 아시아 판 특집기사는 '박세리의 LPGA US 오픈 챔피언십을 보기 위하여 전 인구의 약 12%인 800만 명이 새벽에 뜬 눈으로 열광하였으며, 박세리는 마지막 극적인 반전으로 한국에 무한한 희망과 믿음을 주는 국민적 영웅으로 자리 잡았다'고 기술하였다(권순용, 2006). 또한 1998년 골프 전문잡지인 "모던 골프"가 '골프를 전혀 하지 않는 전국의 성인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0%가 제1순위로 골프를 들었으며, 대한골프신문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터넷 여론조사를 통해 '새천년에 가장 하고 싶은 운동은?'이라는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 총 2,572명 중 16.68%에 해당하는 429명이 1위로 '골프'를 꼽았다(손석정, 2000).

이렇듯 우리나라 국민들은 비판적인 시각으로 골프를 조망(眺望)하기도 하지만 골프에

Collection @ chosun

대한 관심 또한 얼마나 높은지를 여실히 들어 내보이고 있다. 이런 국민적 관심에 따라 골프수요가 급속히 신장하고 있고 골프장 또한 과잉공급을 걱정 할 정도로 빠르게 늘어가고 있다. 그래서 많은 골프장에서는 관련 직원들을 모집하게 된다.

골프 관련 직업이라고 하면 한국의 경우 골프 선수, 골프 지도자로 양분되어 생각하고 있으며 좀 더 나아가면 컨트리클럽의 종사자 정도로 생각되어지고 있다. 캐디나 잔디관리자, 골프장내 식음료 판매, 골프용품 판매 등은 노동자로 취급되어지고 있으며 골프마케팅, 광고, 방송, 잡지 등도 골프 관련 직업이라기보다 골프 전공이 아닌 다른 전공자를 위한 직업군의 일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서은영, 2005). 하지만 골퍼들과 가장 밀착된 상태에서 골퍼들이 만족스러운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골프장 경영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캐디이다. 이들 캐디들의 직업적 자세는 고객 만족과 기업이윤 창출의 극대화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과 기여에도 불구하고 직장과 골퍼들로부터 받는 스트레스와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생리불순, 유산, 과로 등의 산업재해, 고용 불안정, 부당한 인격대우, 성희롱 등으로 근로자로서의 적법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백병주.이석동, 2000; 박홍규, 2001; 박준성, 2002; 김영문, 2003). 이것이 여자 캐디들의 이직을 높이는 요인이 되었으며, 골프장 과잉공급으로 인한 캐디부족 현상과 겹쳐 남자 캐디의 수요를 필요로 하게 된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대부분 캐디는 여자들만의 직업인 것처럼 되어 오던 것이 최근 들어 남자 프로지망생들이 연습장소 확보와 훈련 경비조달 등의 목적으로 캐디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남자캐디의 필요 요인이 발생한 신생골프장을 중심으로 특히 남부지방 그리고 리조트형 골프장에서부터 그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골퍼들이나 골프관계자들에게 불편함 만을 준 것은 아니다. 남자캐디로 부족한 캐디를 메우면서 특히 여성골퍼들에게 호응이 좋아 어떤 골프장은 반 이상의 인원이 남자캐디로 채워진 골프장도 생기게 되었다. 매일경제 인터넷뉴스(2007.5.29일자)에 의하면 '남자캐디가 늘고 있다……. 지방· 리조트에 많아' 라는 제목 하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dCollection @ chosun

"잘 뛰어서 좋네요. 분위도 좋고요."(000. 회사원)

"선수지망생들이라 라이 보는 것도 정확해요."(000. 개인사업)

강원도 평창의 용평 버치힐골프장. 요즘 부쩍 여성 주말 골퍼 비중이 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선수지망생인 건장한 남자 캐디에게 원포인트 레슨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다. 버치힐골프장의 남자캐디 비율은 무려 80%. 지난해 초만 해도 50%대에 머물렀던 남자 캐디가 올해 초를 기점으로 급증했다. 골프장 업계에 남자캐디 바람이 일고 있다.....(중략).....

리조트형 골프장은 아예 남자 캐디로 채워져 있다.....(중략).....

이처럼 남자 캐디가 늘고 있는 것은 골프장 개발 붐으로 캐디 공급난이 이어지면서 여자캐디 구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남부 지역 골프장들은 남자 캐디들의 메카로 뜨고 있다.....(중략).....

경기도 용인의 은화삼골프장은 국내 남자캐디의 효시이자 천국으로 통한다. 전체 캐디 87명 가운데 60%가 남자다.

최근 공식 오픈한 오크힐스CC(강원도 문막)도 여자캐디를 구하기 힘들 자 아예 남자캐디를 공개 모집했다. 리조트형 골프장을 남자캐디로 채운 것이다(매일경제신문, 2007.11.5일자 기사). 2007년 5월 25일 총81홀을 개장한 남부지방의 군산컨트리클럽과 21홀(18+3홀)라운드가 가능한 전북 고창CC 등도 대부분이 프로선수지망생인 남자캐디를 늘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골프장 입장에서 볼 때 평균 7분 간격으로 팀이 나서는 하루 전 라운드 수익의 관건은 팀 간격이 밀리지 않고 예정된 제 시간에 각 라운드를 진행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골프장의 입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이 활동력이 더 좋은 남자캐디들이 라는 것이다. 골프채, 비옷, 골프공, 음식, 음료수, 우산 등 다양한 품목들이 들어있는 프로골퍼들의 골프백은 보통 20kg 정도이며, 골프경기의 평균 라운딩 시간은 4시간 15분이다. 이동거리는 4-5마일이고, 라운딩 동안 캐디는 골프백을 50번 들어 올린다. 캐디는 비가 올 때 골프클럽을 닦아주고 새 볼을 갈아주고 말리고, 야드 거리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는(신정택 외, 2007) 여성보다 체력적인 면에서 그리고 운동신경과 전문지식에서 다소 앞서는 남자 캐디들이 더 적격이라는 판단이다(서울신문,

Collection @ chosun

2006.8.12일자 기사). 그래서 서울 인근 리조트형 골프장과 남부지역의 신생골프장을 중심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남자캐디는 급속도로 공급되는 골프장과 여자캐디의 부족현상, 그리고 골프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캐디를 원하는 골퍼들, 특히 여성골퍼들의 증가, 게다가 경기의 빠른 진행을 바라는 골프장 측의 경영상의 바람이 더해져 남자 캐디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운동 분위기도 띄우고, 실력향상에 도움이 되며, 골프장 입장에서 경기진행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남자 캐디들은 이제 직업인으로 한 영역을 차지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남자캐디의 시초는 1993년 개장한 은화삼골프장으로 당초 캐디 없이 운영하다 2년 뒤 난이도가 높다는 지적 때문에 남자 캐디를 고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서울신문. 8. 12일자). 캐디는 여자의 직업이라는 고정관념이 자리 잡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직업적 정체성을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었다. 직업 속에서의 정체성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으로 누군가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 하는가를 규정하는 사회적 역할 또는 상황에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되는 일련의 의미를 일컫는 말로, 개인의 고정된 속성이 아니라 관계적 현상 속에 경험과 재해석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Burke, 1991). 이와 같은 정체성 이론은 Erickson(1968)에 의해 주창되었는데, 정체성은 타자와 구별되는 자기의식으로 '나 다움'에 대한 감성과 성향, 무의식 등의 심리적 상태(정준영, 1998)로서 자기 자신의 주변과 사회관계와 관련되어 형성된다. 그는 개인의 정체성과 집단 정체성의 관계를 상호보완적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캐디집단의 정체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직업적 하위문화[1]는 남자캐디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남자 캐디 개인들은 남자캐디 하위문화의 요인을 직접적으로 구성하는 주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남자 캐디의 문화와 이 문화를 이루고 있는 남자캐디 개인의 정체성은 바늘과 실 같은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둘 중 어느 한 가지를 제외하면 다른 한 가지를 명확히 설명하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골프문화 속에 남자캐디들이 가지고 있는 하위문화적 구성요소들이 서로 맞물려 적응되어 가면서 형성되는 남자캐디들의 정체성을 탐색하고, 그들의 하위문화를 이해해 보는 것은 건전한 골프문화형성과 장래성 있는 직업으로써 남자캐디문화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1) John W. Loy, Barry D. Mcpherson, Gerald Kenyon(1978)은 스포츠 하위 문화적 주된 형태를 직업적, 동호인, 일탈적 하위문화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Collection @ chosun

B. 연구 목적

남자캐디라는 직업이 스포츠문화의 하위문화[2)]로서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확산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남자캐디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로 이해하려는 학문적 연구가 전무(全無)하다. 외국에서의 남자 캐디 관련 연구로 1998년 Lavallee가 영국에 있는 5명 엘리트-아마추어 남자골프선수와 4명의 남자캐디를 대상으로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캐디는 골프선수가 경기 시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동기 유지, 자신감, 주의집중, 적절한 각성수준, 긍정적인 생각, 적절한 정신 상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규명한 연구(신정택 외, 2007)가 있다는 보고의 정도이다. 게다가 남자캐디의 문화는 물론이고 남자캐디의 존재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 골프문화의 현실이다.

지금까지 스포츠 하위문화와 관련된 연구는 1970년대 후반부터 주로 북미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수행되었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하위문화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진 대표적인 하위문화 관련 연구로는 청소년들의 길거리농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그들 삶의 조건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밝혀보는 임수원(1999)의 연구, 청소년들의 댄스문화를 그들 삶의 환경적인 관계와 대중문화적인 요소의 측면에서 관찰하고, 청소년 하위문화로서 신체문화의 새로운 함의를 살펴보는 김숙영과 원영신(2000)의 연구, 골프 동호인의 하위 문화적 특성과 기능을 살펴보는 임수원(2000)의 연구, 테니스 동호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과정을 규명해보는 한태룡(2003)의 연구, 골프 동호인의 중독성 사교성의 특성들을 분석한 김찬룡·이근모(2004), 서병세·김찬룡(2005)의 두가지 연구, 이종격투기의 하위문화적 특성을 살펴본 남행웅(2006)의 연구, 주니어 골프선수들의 독특한 문화를 살펴본 윤경·김응식(2007) 등의 연구가 있다.

이상 국내에서 수행된 스포츠 하위문화와 관련된 연구는 의미 있는 결과들을 끌어내어 놓고는 있지만 한정된 종목을 거시적으로 접근하여 그 종목의 특성과 기능적인 측면만을

2) 어떤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행동양식과 가치관을 전체로서의 문화라고 할 때, 그 전체적 문화의 내부에 존재하면서 어떤 점에서는 독자적 특질을 나타내는 부분적 문화가 곧 서브컬처(Sub-culture)이다. (두산백과사전).

Collection @ chosun

살펴보고 있으며, 특히 수적인 면에서도 빈약하여 우리나라 체육학계에서 관심을 갖고 접근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연구 영역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현대사회 산업문화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난 문화적 현상인 남자캐디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와 새롭게 형성되어 가고 있는 하위문화의 내용을 분석함과 동시에, 남자캐디 개인이 남자캐디의 하위문화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여 캐디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모습을 탐색하고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C. 연구 문제

한국 골프문화에는 캐디가 여자만의 직업으로 인식되는 독특한 골프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이럴 때 한국 골프 '남자 캐디집단'의 문화를 분석·이해하는 연구는 스포츠 하위문화 연구의 학문적 가치뿐만 아니라 골프의 직업적 활성화를 위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집단이란 두 사람 이상이 모인 집합체를 말한다. 그러나 단지 사람의 모임이 아니고 어떤 공통의 속성, 다시 말하면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역할 분화와 행동양식을 갖추게 될 때 비로소 이를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집단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다. 첫째 공동관심사 즉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둘째 구성원 각자의 역할과 지위분화 즉, 기능이 분화되어 있다. 셋째 구성원 간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상호작용이 있다. 넷째 구성원 각자가 소속감과 일체감을 가지고 있다. 다섯째 모임체에는 구성원의 행동양식 즉 규정(룰)이 존재한다(강복창, 2003).

이상에서 볼 때 캐디는 목표와 소속감을 가지고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의 역할을 해가는 행동양식을 가진 직업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남자캐디 문화는 현재 형성되어 있는 캐디문화 속에서 적극적인 직업적 하위문화의 실천에 의해 형성되어 있는 결과이며, 남자캐디 개인은 골프의 하위문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자기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주체로 판단된다.

캐디는 여자캐디, 남자캐디, 노-캐디 시스템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한국 골프문화에 새롭게 자리 잡아 가고 있는 남자캐디들의 정체성을 탐색하고 내부자적 입장으로 캐디 개인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된 남자캐디 집단의 하위문화를 이해하

Collection @ chosun

려는 여러 가지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연구자는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남자캐디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연구를 실시 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의 문제가 선정되었다.

1. 남자캐디의 개인적 특성(特性)은 어떠한가?
2. 직업캐디로 적응은 어떠한가?
3. 남자캐디로서 직업의식은 어떠한가?
4. 어떤 일탈적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가?

D. 연구의 한계

우리나라 남자캐디의 하위문화를 문화기술적 방법으로 탐색해 보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들이 남부지역 신생골프장의 캐디들인 관계로 오래 전통을 가진 골프장의 문화적 환경이 다를 수 있는 모든 골프장 남자캐디의 문화로 적용하는데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하우스 캐디들인 관계로 전문 프로 캐디의 문화로 적용하는데 는 한계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연구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들의 개방형질문지의 답변과 이를 토대로 한 심층면담, 관찰, 문헌분석을 근거로 하며, 연구자 자신이 연구도구로 사용되는 질적연구의 특성상 연구자의 주관적 견해가 연구 과정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배제 할 수 없다.

넷째, 사회문화적으로 적응이 덜 된 연구 참여자들의 소극적인 연구 참여 자세로 인해 관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다섯째, 면담 시 연구 참여자들의 언어구사 능력과 표현능력에 따라 연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Collection @ chosun

Ⅱ. 이론적 배경

A. 문화

1. 문화의 정의

우리들은 일상생활에서 '문화'라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한다. 하지만 문화를 생각하는 관점,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 제각각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정의 내리기란 매우 어렵다. 그래서 다양한 정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Williams는 문화를 '영어 단어 중에서 가장 난해한 몇 개 단어 중 하나'라고 하면서 문화를 넓은 의미에서 세 가지로 정의하였다. 첫째 지적, 정신적, 심미적인 계발의 일반적 과정을 일컫는다고 했고, 둘째 한 인간이나 시대 또는 집단의 특정 생활방식을 가리킨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지적인 작품이나 실천행위, 특히 예술적 활동을 일컫는다(안민석외, 1996에서 재인용)라고 했다.

문화(文化, culture)는 일반적으로 한 사회의 주요한 행동양식이나 상징 구조를 말한다. 예절, 의상, 언어, 종교, 의례, 법이나 도덕 등의 규범, 가치관과 같은 것들을 포괄하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가치관, 행동 양식 등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관점을 가진 이론 기반에 따라 여러 가지 정의가 존재한다.(위키백과, 2009)

'문화'하면 일감 떠오르는 '한국문화'니 '전통문화'니 하는 문화다. 이때 문화는 '한 인간 집단의 생활양식의 총체'를 뜻한다. 문화에 대한 이런 이해와 유래는 19세기 후반 영국의 인류학자 타일러가 내린 " 문화는 지식. 신앙. 법률. 도덕. 관습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에 의해 얻어진 다른 모든 능력이나 습성의 복합적 총체"라는 정의에서 왔다. 이 정의는 가장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가장 포괄적이다.(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2).

Collection @ chosun

일반적으로 문화는

① 구미풍(歐美風)의 요소나 현대적 편리성(문화생활, 문화주택 등)

② 높은 교양과 깊은 지식, 세련된 생활, 우아함, 예술풍의 요소(문화인, 문화재, 문화국가 등)

③ 인류의 가치적 소산으로서의 철학. 종교. 예술. 과학 등을 가리킨다.

③의 경우는 독일철학이나 사회학에 전통적인 것이며, 인류의 물질적인 소산을 문명이라 부르고 문화와 문명을 구분하고 있다. ①과 ②의 경우는 문화가 없는 인류가 과거에 존재하였고 현재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사회과학, 특히 문화인류학에서는 미개와 문명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인류가 문화를 소유하며 인류만이 문화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문화란 인류에서만 볼 수 있는 사유(思惟), 행동의 양식(생활 방식)중에서 유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학습에 의해서 소속하는 사회(협동을 학습한 사람들의 집단)로부터 습득하고 전달받은 것 전체를 포괄하는 총칭이다(박만건, 2003).

이상과 같이 문화에 대한 정의는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과 학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문화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속성은 다음과 같다.

①문화는 학습된 행동이다.

②문화는 다양하고 동태적이다

③문화는 사회적 유산이다.

④문화는 과학의 방법에 의하여 분석 가능한 법칙성을 가지고 있다.

⑤문화는 초유기체적이다.

⑥문화는 타인으로 하여금 이전의 환경에 적응하고 창조적 표현을 위한 수단을 획득하는 도구이다. 이렇게 한 인간 집단이 사회에서 복합적인 삶의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을 문화라고 할 수 있겠다.

2. 문화의 구조

문화는 사회가 요구하는 목적과 특성에 따라 물질문화(Material culture)와 비물질문화(Non- material culture)로 구분된다.

Collection @ chosun

물질문화란 문화의 물질적 측면에 대한 것으로 자동차, 비행기 등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인간의 창조물이나 업적을 말한다.

비물질 문화는 비가시적인 신념, 이념, 사회제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정신문화와 행동문화로 세분할 수 있다. 정신문화는 학문, 종교, 예술과 같은 정신적 창조물을 말하는 것으로 가치적 문화이며 행동문화는 관습, 민속, 제도, 등과 같은 행동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범적 문화를 의미한다.

또한, 문화는 핵심문화(Core culture)와 하위문화(Sub culture)로 구분되기도 하는데 핵심문화는 한 사회의 중심적, 지배적 문화로서 성인 다수집단에 의해 형성되는 문화를 말하며, 하위문화는 중심이 되지 못하고 주변부화되며 사회의 소수 집단에만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문화를 말하는 것으로 청소년문화, 흑인문화, 스포츠문화 등이 이에 속한다. (김범식외9, 2003)

3. 하위문화의 정의

1967년 Wolfgang & Ferracuti에 의하면 하위문화에 대한 정의는 1947년 Gordon에 의해 최초로 이뤄졌다고 한다. 그는 하위문화를 “국가문화의 하위분야... 즉 그것에 속한 개인에 대해 총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능적 단위”라고 정의하였다. 최근에는 총체적 문화에서 분리된 ‘문화 주체’ ‘하위 민족정신’ 혹은 ‘가치 집합체’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또한 1975년 Fischer는 보다 큰 사회체계와 문화 내에 존재하는 사회적 하위체계와 관련된 일련의 신념, 가치, 규범, 관습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김우성, 2000)고 설명하고 있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한 사회 내에서도 완전히 동질적인 문화가 사회의 모든 영역에 자리 잡기는 힘들다. 문화는 사회마다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같은 사회 속에서도 다양한 문화가 존재한다. 이와 같이 어느 한 집단이 전체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 유형과 다른 독특한 문화를 지니는 것을 하위문화(Sub culture)라고 한다. 그러나 모든 문화가 반문화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즉 하위문화라 하더라도 반드시 문화의 기본적인 속성인 공유성, 학습성, 축적성, 전체성, 변동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하위문화는 참가자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또 자원, 메시지, 영향력 등을 교환하는 사회적 그물망이며, 하위문화의 차원은 그들 구성원들을 연결하고 사회에서 서로 다른 사람

Collection @ chosun

들로부터 그들을 구별하는 특별한 의미, 심볼, 장비, 가치, 믿음, 언어, 의식 그리고 행동 유형 등을 포함한다(Nixon, 1992).

하위문화의 핵심은 독특한 사회 상황 하에서 나타나는 가치와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서로간의 상호작용 유무 간에 관계없이 가치와 규범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 수용되면 가치와 규범은 직업적 또는 오락적 생활행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간단히 말해 개인의 생활행태는 일반사회와 관련을 갖지만 가치, 규범, 신념, 태도, 언어 등으로 대표되는 특정한 하위문화와의 일체감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김우성, 2000).

이상과 같이 살펴본 하위문화의 정의에 의하면 '문화'에서 '스포츠'는 하위문화라고 할 수 있다.

B. 스포츠 문화

1. 스포츠 문화의 정의

스포츠 문화란 스포츠 활동에 따른 인간 행동의 양식으로서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활동 욕구를 충족하는 동시에 사회 구성원에게 스포츠의 지식, 규범, 기술, 가치를 전달하는 사회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스포츠는 시대와 국가의 정치, 경제, 교육에 의해 영향을 받고 변화하면서 습득된다. 즉 스포츠는 다양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낸 매체이면서 다양한 사회 가치구조에 의해 그 형태를 변화시키기도 하는 문화 산물인 것이다. 그동안 스포츠는 종교, 예술, 학문과 같은 지적 문화 활동과는 달리 신체 활동으로 규정되면서 우리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 영역에서 소홀히 다뤄지거나 부분적으로 다뤄져 왔다. 그러나 오늘날 문화 개념이 더욱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스포츠는 사회 구성원의 욕구와 가치를 충족시켜주는 매우 강력한 문화적 도구로 변모해왔다.

스포츠 이데올로기를 분석하는 측면에서의 스포츠문화란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인간의 문화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하나의 부분이라는 의미에서 문화로 말하고 있다. 그것은 스포츠라는 이념을 통해서 인간의 가치와 신념, 지식과 기술, 법과 관습 등 전체문화 구

Collection @ chosun

성 요소로서 존재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문화형태로서의 스포츠는 헤게모니 수준에서 볼 때 수동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박홍규 외, 1992). 그래서 스포츠 활동 중 동호인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할 때 그들은 사회적 연대감을 형성하여 동호인 하위문화를 형성하는 것이며, 같은 스포츠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조직 또는 단체를 만들어 그들만의 조직을 구축하고, 이 조직 구성원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독특한 정체성을 갖는 직업적 하위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2. 스포츠 하위문화

a. 스포츠 하위문화의 개념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메스컴의 발달로 인하여 전 세계의 다양하고 복잡한 스포츠 문화들을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종목 내에서도 각 나라마다, 각 지역 마다 또는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른 문화가 존재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확실히 모든 선수들이 복종하는 많은 규범이 있으며, 그러한 보편적 규범은 우리생활의 많은 부분을 지배하고 있다. 유니폼을 전통적인 스타일로 입을 것인가 새로운 스타일로 입을 것인가 또한 스포츠팀 내에서 머리스타일을 길게 할 것인가 짧게 할 것인가 등의 경우이다. 예를 들어 전문적이라 불리는 스포츠 조직 협회장들이나 법관들의 윤리규범과 같이 특정직업인 그룹에게만 선별적으로 적용되는 규범도 있다.

이러한 전문적인 규범들은 단지 직업상의 생활만을 통제할 뿐이지 생활 전체를 규제하지는 않는다. 이와 같이 개인에 따르면 문화적인 다양성과 더불어 특정 집단에 독특하게 나타나는 문화적 다양성을 우리는 하위문화라고 하는 것이다(한이석, 2004). 그래서 스포츠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집단의 사람들이 갖는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스포츠 하위문화라고 하며 그들의 규범, 신념, 태도, 언어, 종교, 관습, 생활방식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Collection @ chosun

b. 스포츠 하위문화의 특징

스포츠 문화는 그 시대, 그 나라의 지배적인 문화 양식에 의해 영향을 받아 습득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배 문화에 의해 단순히 습득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가 하나의 하위문화를 생산하고 새로운 스포츠 문화로 자리메김하게 한다. 이렇게 자리 잡은 모든 하위문화는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스포츠 하위문화의 경우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Donnelly는 스포츠 하위문화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임수원, 1999).

① 국가의 경계를 초월한 동일한 집단
② 공동의 문화적 특징을 소유한 상호작용하는 구성원들의 집단
③ 믿음, 관습, 가치, 규범, 언어, 의상, 등과 같은 일련의 독특한 구성요소에서의 창조와 변화
④ 지배적인 문화의 성질과 다른 명확하고 독특한 성질
⑤ 생활양식에 대한 참여 정도와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양의 다양화
⑥ 활동, 이해관심, 믿음의 영역과 잠재력에서의 다양성으로 개인적인 성장의 여지
⑦ 정체성, 지위, 우정, 지식, 동과 같은 보상을 통해 참가자의 심리적, 사회적, 물질적 요구의 충족
⑧ 정보를 공유하고 퍼뜨리고 그것에 의해 하위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교류의 수단

3. 골프 하위문화

현대사회에 있어서 스포츠는 사회집단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현대인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한 시대의 문화적 생활 안에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한 스포츠 문화를 즐기게 되는데 스포츠의 가치에 대한 의미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가치 판단에 대단히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우리사회의 꾸준한 경제 발전은 경제적 여유를 갖고 있는 상류층만이 즐길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온 골프와 같은 스포츠에 대한 과거의 부정적인 인식을 크게 변화시켜 과거와는 달리 모든 사람들이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우리

Collection @ chosun

나라에서는 여전히 골프는 꽤 논란의 대상이 되는 스포츠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다. 환경 보호 관련자들은 골프가 농약살포, 산림훼손 등의 환경파괴의 이유로, 사회 일각에서는 사회 계층 간 위화감 조성으로, 또 다른 일부에서는 로비활동의 주 무대로 생각하고 골프에 부정적인 시각을 여전히 보내고 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는 우리나라 경제가 골프를 즐길 정도의 수준이 되었으며, 고용 창출 등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스포츠 활동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서울올림픽 이후 국내의 산업성장과 GNP의 증대, 전반적인 생활수준 향상과 스포츠, 레저,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귀족스포츠의 상징이었던 골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국면은 국내 골프인구가 급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1980년 75만 명이었던 내장객수는 10년 후인 1990년에는 3백23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일부 부유층에 한정되어 있던 골프는 이제 일반 회사원은 물론 가정주부, 심지어는 청소년들에게까지 폭 넓게 확산되고 있다(김찬룡, 2004). 골프 인구의 증가는 골프산업 시장의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치고 골프 내수 진작 및 국내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고용측면에서는 18홀 1개 골프장을 기준으로 2백 명의 상용인원이 투입되고, 약 15조원의 자산 가치, 약 2조원대의 용품시장, 여기에 지역사회 개발, 국위선양 및 골프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한다(김찬룡, 2006).

이와 같이 골프문화의 대중화로 인한 골프인구 증가는 골프장 수의 증가와 이에 따르는 고용인원 증가가 필수적이다. 그중에서도 골퍼들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캐디의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 무대인 골프장과 캐디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a. 골프장 탐색

(1) 골프장업의 개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골프장업은 불특정 자연인 또는 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하여 경영하는 등록 체육시설업으로 시, 도지사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그 시설을 설치하고 준공 후 다시 시, 도지사에게 등록을 필한 후 영업을 해야 하는 체육시설업이다.

Collection @ chosun

(2) 골프장 유형

① 컨트리클럽(Country Club)

우선 이름상의 분류로써 도시의 산업사회의 삭막함을 달래고 외딴 곳에 떨어져서 완벽한 휴식과 사교적 만남을 제공하기 위한 클럽을 말한다. 비록 골프장이 없더라도 지역적으로 도시 외곽에 자리 잡고 있으며, 테니스 코트, 게이트볼장, 수영장 시설 등의 휴양시설이 있는 클럽을 말할 수 도 있으나 대부분이 골프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인해 골프장의 대명사로 되어버린 경우가 많다. 보통 컨트리클럽이라고 하면 18홀 규모 이상의 골프장을 갖추고 수영장, 게이트볼 시설, 테니스코트, 그리고 클럽하우스내의 시설범위로서 회원들을 위한 파티, 결혼식 등의 각종 연회 및 유희를 즐길 수 있는 카트룸, 휘트니스실 등이 갖추어진 클럽을 말한다(한국골프장사업협회[3], 1996).

② 골프 클럽(Golf - Club)

골프클럽은 골프만을 위한 시설이 갖춰진 골프장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두루뭉술 쓰이고는 있지만 점차 정확한 골프장 명칭으로 개선하고 있는 과정이다.

클럽하우스가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도 되며 클럽하우스내의 레스토랑 수준도 간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소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시설을 갖춘 형식을 완화시킨 골프장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적 차이지만 목욕을 할 수 있는 욕탕시설이나 샤워시설만 갖추고 코스 관리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하여 명문 골프장으로 알려진 외국의 골프장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비록 그 명칭이 골프클럽이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클럽이 아주 많이 있다.

(3) 골프장 구성

① 골프 코스 구성

골프가 처음 생긴 곳은 스코틀랜드 해안의 초원지대, 즉 링크스이다. 그러나 골프가 발전되어 내륙지방에도 골프장이 설치됨에 따라 링크스 또는 시사이드 코스 외에 인랜드 코스로 나뉘었다. 전형적인 시사이드 코스는 스코틀랜드의 포스만(灣) 입구에 있는 세인트 앤드루스(Saint Andrews)로, 자연의 목초지대 그대로이며 북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3) 1974년 3월 (사)골프장업연합회로 인가를 받아 활동하다가, 1985년 2월에 (사)한국골프장사업협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 이후로 2002년11월 한국골프장경영협회로 명칭을 바꿔 현재에 이르고 있다.

Collection @ chosun

변화와 모래땅의 미묘한 감각이 조화되어 플레이에 재미를 더해준다. 이에 비해서 인랜드 코스는 지형적으로 복잡하여 구릉, 산악, 산림, 암석, 하천, 호소(湖沼)를 내포하는 인공적 설계가 특징이다. 그 전형이 마스터스 토너먼트 경기가 열리는 미국 조지아 주(Georgia)의 오거스터내셔널 코스이다.

코스의 표준타입으로는 18홀을 기본으로 한다. 즉 전체 길이 5,000-6,300m, 너비는 100-180m, 전역(全域)이 적어도 70만㎡가 필요하다. 전반(前半)의 9홀을 아웃코스(Out course), 후반(後半)의 9홀을 인코스(In Course)라 한다. 각 홀은 길이에 따라 파3홀(남자 229m 이하, 여자 192m 이하), 파4홀 (남자 230-430m, 여자 193-366m), 파5홀(남자 431m 이상, 여자 367-526m)로 나뉜다.

파(Par)란 표준타수라는 의미로, 롱홀(Long hole)의 파5에서는 볼을 5회 쳐서 홀컵(Hole Cup)에 넣는 것이 기본이다. 보통 18홀 코스의 파는 합계 72이며, 숏홀(Short Hole)이 4홀, 롱홀(Long hole)이 4홀, 미들홀(Middle hole)이 10홀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18홀 1코스의 표준평균타수는 72타가 일반적이지만, 70, 71 또는 73타의 코스도 있을 수 있다. 18홀을 기준으로 Par70, Par71, Par73이 되는 경우는 대상 부지의 형태, 지형 여건, 보전 지역의 분포 등에 따라 변수가 작용한다(서윤석, 2001).

코스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티잉그라운드(Teeing Ground) : 플레이할 홀의 출발장소를 말한다. 이것은 2개의 티마커(Tee Marker)의 외측을 경계로 하여 전면과 측면이 한정되며, 길이가 2클럽 길이인 직사각형 구역이다.(한국중고등학교연맹).

페어웨이 : 볼의 정상적인 통로라는 뜻으로, 잡초가 없이 잔디를 깎아 볼을 치기 쉬운 상태로 유지된다. 러프는 페어웨이 외의 정지(整地)되지 않은 지대로 잡초, 저목(低木), 수림(樹林) 등으로 되어 있다. 페어웨이는 러프를 합하여 룰에서는 스루 더그린(Through the green)이라 한다.

해저드 : 부정확한 샷을 억제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치된 방해물 또는 함정으로, 벙커와 워터해저드가 있다.

퍼팅그린 : 잔디를 카펫 모양으로 손질하여 한 지점에 지름 10.79㎝의 홀을 파고, 그 위치를 멀리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중앙에 주로 기(旗)를 단 핀(깃대의 별칭)이 세워져 있다. 일반적으로 볼을 굴려서 평균 2타로 홀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 (대한골프협회

dCollection @ chosun

자료참고)

② 직원 구성

우리나라 골프장에서 골퍼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갖고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ㄱ) 프론트직원

골프장 입장을 위하여 등록을 받아 락카를 배정하여 열쇠를 지급하고, 그린피와 기타 경비를 수납하는 일을 한다.

(ㄴ) 경기진행요원

경기가 잘 진행되도록 골프 코스를 돌아다니며 경기진행을 독려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는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요원들은 선수지망생들이 많다.

(ㄷ) 캐디

골프장에서 고객을 위하여 골프백을 담은 수레(cart)를 밀고 다니거나 전동차를 운전하며 골프경기 진행 시 고객을 따라 골프백을 운반하여 용도에 맞는 골프채를 건네주고 골프장내 각 장소의 특징 및 거리를 알려주어 경기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고객이 친 공을 찾아내고 홀의 깃대를 빼내고 흙주머니를 가지고 다니며 손상된 잔디 위에 부어 수리한다. 또한 골프공을 비눗물로 채운 회전식 텀블러에 넣어 세척하고 닦으며 골프채를 깨끗하게 닦아 정리한다.

(ㄹ) 그린키퍼

그린을 유지보수 관리하는 사람을 통칭해서 말한다. 간단하게는 잔디깍기에서 부터 재배, 관리, 농약주기, 비료주기, 물대기, 물 빼기, 월동 준비, 월하 준비 등등 전문적인 지식도 풍부해야 하고 경험도 많이 필요하다. 물론 그린키퍼 중 관리자가 되면 모든 하위 그린키퍼들을 관리해야 하니 더욱 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한다. 미국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잔디에 대한 학문이 많이 발달하여 펜실베니아 주립대처럼 농대로 유명한 학교에선 잔디학과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건국대학교 평생대학원에 그린키퍼 양성과정이 설치되어있다.

(ㅁ) 클럽하우스 직원

각종 음식을 조리하고, 식음료 등을 제공하는 일을 맡아서 하는 직원들이다. 여기에는

dCollection @ chosun

그늘집(코스 중간 중간에 설치되어 있는 휴게실 같은 곳으로 직원이 상주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외국에서는 별로 없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이다) 직원도 포함된다.

(ㅂ) 주차관리요원

골프장에 들어오는 모든 차량을 정리하는 일을 한다.

(ㅅ) 락카 직원

옷장관리, 경기가 끝난 골퍼들의 신발정리 등을 맡아 일한다. 우리나라 골프문화의 독특한 문화중 하나이다.

(4) 전국 골프장 현황

21세기 가장 유망한 레저산업중 하나인 골프가 우리나라 산업사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이 되었다. 여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엄청난 숫자가 될 것이다. 골프산업의 주된 현장인 골프장의 현황은 어떠한지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 골프장경영협회(회장 우기정, 2009)에 의하면 <표 1>과 같이 2008년 12월 31일 현재 한국골프장경영협회가 파악하고 있는 전국 골프장은 미착공, 건설 중인 골프장까지 포함하면 440개소의 골프장이 있다고 한다.

표 1 . 2008년 전국골프장 총계 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계	합계	440	0	7	2	5	3	3	4	139	48	27	18	23	36	47	33	45
	회원	239	0	5	1	2	1	1	2	84	24	15	10	7	15	22	21	29
	대중	201	0	2	1	3	2	2	2	55	24	12	8	16	21	25	12	16

이것을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골프장으로 나눠 본다면, 회원제 골프장은 총수 239개소, 대중골프장은 총수 201개소가 된다. 이중 공사가 완공되어 운영 중인 골프장은 <표 2>와 같이 회원제 골프장 183개소, 대중골프장 128개소가 있다.

dCollection @ chosun

표 2. 2008년 전국 운영 중인 골프장 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운영중	합계	311	0	5	2	4	0	2	3	110	37	19	10	11	21	31	18	38
	회원	183	0	4	1	1	0	1	2	73	20	11	6	5	9	14	13	24
	대중	128	0	1	1	3	0	1	1	37	17	8	4	7	12	17	5	14

건설 중인 골프장은 <표 3>과 같이 회원제 골프장 52개소, 대중 골프장 58개소가 있다.

표 3. 2008년 전국 건설 중인 골프장 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건설중	합계	110	0	2	0	1	3	1	1	24	8	8	8	10	14	12	15	3
	회원	52	0	1	0	1	1	0	0	10	4	4	4	3	6	7	8	3
	대중	58	0	1	0	0	2	1	1	14	4	4	4	7	8	5	7	0

또, <표 4>와 같이 공사가 아직은 시작되지 않아 미착공인 회원제 골프장이 4개소, 대중 골프장이 15개소가 있다.

표 4. 2008년 전국 미착공 골프장 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미착공	합계	19	0	0	0	0	0	0	0	5	3	0	0	2	1	4	0	4
	회원	4	0	0	0	0	0	0	0	1	0	0	0	0	0	1	0	2
	대중	15	0	0	0	0	0	0	0	4	3	0	0	2	1	3	0	2

dCollection @ chosun

하지만 불과 6년 전만 해도 전국의 골프장 총수는 245개소 밖에 되지 않았다. 6년 전인 2003년 1월1일 현재 전국골프장 총계 현황만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표 5. 2003년 전국 골프장 총계 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계	합계	245	3	4	2	3		2	3	106	28	14	8	9	10	16	10	27
	회원	165	2	4	1	1		1	2	75	15	11	6	5	7	10	9	16
	대중	80	1		1	2		1	1	31	13	3	2	4	3	6	1	11

또한 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우기정)가 회원사 가입 골프장을 비롯, 전국에 산재한 6홀 규모 이상 대중골프장을 포함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7년 말 현재 운영 중인 전국 골프장 277개소(회원제 175개소, 대중 102개소)를 이용한 내장객은 모두 22,343,079명으로 2006년 2,50개소(대중 93개소, 회원제 157개소) 19,653,359명에 비해 2,689,720명이 늘어 전년대비 1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軍)이 운영 중인 18홀 미만 골프장 24개소 통계를 제외한 수치임>

현재 운영 중인 회원제 골프장 175개소를 찾은 2007년도 내장객은 모두 14,923,213명으로 전년도(157개소, 13,507,219명)보다 1,415,994명이 증가해 10.5%의 성장률을 나타냈으나 대중골프장 102개를 이용한 내장객은 7,419,866명으로 전년도(93개, 6,146,140명)보다 무려 1,273,000여명이 증가해 20.7%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 전체적인 내장객 성장세를 이끌었다. 전국의 골프장은 2008년 12월 31일 현재 모두 421개소 파악되어 국내골프장 400개 시대가 개막되었으며 운영 중인 골프장은 회원제가 183개소, 대중골프장이 128개소 집계되었다. 이렇게 골프장이 증가함에 따라 여기에서 종사해야 할 캐디를 포함한 많은 직원들을 필요로 하게 되고, 특히 캐디의 경우 남자캐디나 'No 캐디[4)]' 라고 하는 다른 방법으로 수요를 충당하려고 하는 것이다.

4) 경기를 도와주는 도우미가 필요 없이 골퍼 스스로가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경기를 진행하는 제도.

Collection @ chosun

b. 캐디로의 접근

(1) 캐디의 유래

대한골프협회와 미국의 골프협회 및 영국의 세인트앤드류의 로열 에인션트 골프클럽이 마련해 두고 있는 골프규칙의 제2장 용어의 정의에 의하면, '캐디란 플레이하는 동안 플레이어의 클럽을 운반 또는 취급하거나 본 규칙에 따라 플레이를 원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또한 각 골프규칙들은, 공용의 캐디는 볼에 문제가 일어난 때 그 볼의 소유자의 캐디가 되며, 캐디가 가지고 있는 휴대품도 그 볼의 소유자의 것으로 보되 다만 플레이어의 특별한 지시에 의하여 행동한 때에는 그 지시한 플레이어의 캐디로 간주한다.' 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골퍼가 플레이하는 동안 품행을 단정히 하여 골퍼가 경기를 할 때 정숙한 마음가짐으로 골프장의 규칙을 준수하며 자기가 맡은 내장객이 유쾌하게 플레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조하여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는 사람을 말한다(GMI 골프경영연구소, 2000). 골프규칙에 캐디라고 정의 되어 있지만 정작 캐디들은 캐디라는 용어를 싫어해서 경기보조원등으로 불리우기를 원하고 있다(백병주. 이석동, 2000). 캐디란 플레이어가 플레이하는 동안 골프 전반에 관한 지식을 어드바이스 해줄 뿐만 아니라 함께 경기를 이끌어 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캐디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첫째, 16세기에 에든버러에서는 '포터' 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Caddie' 라고 불렀으며 그것에 유래한다.

둘째, 제임스 2세, 3세, 4세가 젊은 장교들에게 클럽을 나르게 해서 그 젊은 장교에 해당하는 프랑스어인 'Cadet' 에서 유래한다.

셋째, 1542년 스코틀랜드의 왕 제임스 5세가 잉글랜드와의 전쟁에서 패한 뒤 세상을 떠나자 프랑스에서 유학 중이던 메어리 공주가 왕위계승을 위해 스코틀랜드로 돌아왔다. 골프광인 메어리 여왕은 프랑스에서 데려온 귀족 어린이들을 골프를 칠 때마다 데리고 나가 시중을 들게 했는데 이들이 바로 캐디의 원조다.

귀족의 어린 아이들을 프랑스어로 카테(Cadet)라고 불렀는데 영어로 정착되면서 캐디로 바뀌었다. 메어리 여왕은 골프장에서 클럽을 바꿀 때마다 혹은 다른 심부름을 시킬 때마다 '카테' 를 외쳤다고 한다.

dCollection @ chosun

(2) 캐디의 직업적 유형

우리나라의 골프장에 종사하는 캐디는 거의 여성인데 반해 외국에서는 남성들이 많다. 캐디의 유형을 살펴보면 선수들이 동반하는 플레이어 캐디(player caddie), 임시 고용 캐디(employee caddie), 하우스 캐디(house caddie)의 세 종류가 있다.

플레이어 캐디(player caddie)는 투어 프로 골퍼들이 동반하는 캐디로서 주로 전속 계약에 의해 고용한다. 이들은 골프 실력은 물론 거리, 방향, 경사, 코스 공략 등에 관한 상당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다.

임시 고용캐디(employee caddie)는 골프장 경영자의 근로자로서 경영자의 지시에 따라 플레이어를 돕는 캐디이다. 이런 캐디와 플레이어 사이에는 아무런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캐디는 노동을 제공하고 플레이어는 그런 캐디의 도움에 대한 댓가를 지불한다.

하우스 캐디(house caddie)는 플레이어들이 캐디의 도움을 청하고, 캐디들은 그들대로 플레이어를 돕고 플레이어로부터 보수를 받기 원할 때 골프장 경영자가 플레이어에게 알선해주어 플레이어를 돕는 캐디이다. 이들은 주말 주중에 상관없이 대기하고 있다가 일을 하는 캐디를 말하는데 우리나라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캐디들을 말한다(김교창, 1999).

(3) 우리나라 캐디 활동의 현황

우리나라에서는 1924년 경성골프구락부를 설립해 1929년 개장한 군자리 골프코스에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골퍼들이 경기를 개최하고 참가하게 되어 그때부터 최초로 캐디가 등장했다.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캐디는 보통 여자를 떠올리지만 초창기 골프장 캐디들은 모두 남자였다. 그 당시 여자들이 직업적인 캐디 생활을 하기란 극히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이 여성캐디가 직업으로서 자리 잡은 것은 1960년대 이후 골프장이 차츰 증가하고 골프가 손님접대로 이용되면서 부터다(일간스포츠, 2005.9.26일자 기사). 1967년 박정희대통령이 태릉C.C 라운드를 돌 때 처음으로 여자캐디를 고용하면서 그 캐디는 박정희대통령의 전용캐디로 고용되기도 했다. 그 이후로 다른 골프장에서도 여자캐디가 등장하면서 전문적인 캐디의 직업으로 성장해갔다(박현미, 2005).

dCollection @ chosun

18홀 골프장을 기준으로 볼 때 앞으로 약300여개소의 골프장에서 직업적인 차원으로 종사 하는 경기보조원수는 약 6만여명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들은 거의 여성근로자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역할은 골프경기자들이 경기 하는 동안 경기진행과 경기를 도와주는 서비스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장진, 2007). 또 손석정(2001)에 의하면 당시 우리나라 캐디는 회원제 골프장 114곳에서 총 12,40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남자캐디는 100명에 불과하여 99.19%가 여성캐디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다.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골프 경기에서 최경주, 박세리등 우리나라 골퍼들이 우수한 성적을 내면서 골프는 우리의 관심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골퍼들을 보조하고 있는 캐디들은 아직도 법의 사각 지대에서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100년의 전통을 쌓아가면서 캐디는 단순한 백을 나르는 포터가 아닌 골프의 파트너로서 플레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국내서는 캐디에 대한 정의가 왜곡되거나 잘못 인식 돼 있는 부분이 없지 않다. 아무래도 골프의 대부분이 남자이고 캐디의 대부분이 여자이다 보니까 왜곡되어지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 이와 함께 아직도 캐디를 단순직 노동으로 생각하는 골프장 내 직원들과 골퍼들로 인해 보다 전문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다(레져신문,2003).

(4) 한국 남자 캐디의 위치

우리나라의 캐디 직업은 어언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원산의 첫 골프장을 시작으로 효창, 청량리 골프장이 들어서면서 대부분 소년들이 골프백을 메고 다녔고 이에 상응한 품삯을 받은 것이 캐디의 효시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초창기뿐만 아니라 현재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도 남자캐디가 활동하고 있다. 연구자가 2008년 1월 3일부터 1월15일까지 동계훈련에 참여하여 현장 조사한 말레시아 임피안골프장[5]도 하루에 활동하는 20명 정도의 캐디 중 여자캐디가 3-4명밖에 안됐던 것으로 조사 되었다. 그리고 세계적인 프로선수들도 대부분 남자캐디와 호흡을 같이 하는 것을 방송을 통해서 보고 있다.

국내 골프장에서 일하고 있는 남자 캐디의 수는 정확하게 헤아릴 수 없지만 전국 10개

5) 2003년 말레이시아 골프 매거진에 의해 말레이시아의 TOP10 골프장 안에 들어가는 골프장으로 선정, 말레이시안 프로 골프 협회에 의해 가장 좋은 그린상태로 인정되어, 말레이시안 PGA 투어의 챔피언쉽 개최지로 선정, The Impian Master 2005 (International PGA Tour) 개최지.

dCollection @ chosun

안팎의 골프장에 200명 남짓인 것으로만 추산된다. 골프장경영자협회에 등록된 180여개의 정규홀(18홀 이상) 골프장이 대부분 평균 80～100명의 캐디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에 비춰 아직은 '새 발의 피'인 셈이다(서울신문, 2006. 8.12일자)라는 기사가 나온 지 채 2년도 지나지 않은 2008년 3월 현재, 연구자가 조사 해본 골프장만 해도 30개가 넘는 곳에서 남자 캐디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년 새 30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골프장 상황으로 볼 때 여자캐디들의 체력적 한계,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이직과 신생 골프장의 양산(量産)으로 인한 캐디 부족현상이 지속적으로 남자 캐디를 골프장으로 유인(誘引)하고 있다.

남자 캐디들은 이제 현대사회의 신종 직업인으로서 한 영역을 차지하게 되었다. 하지만 프로선수 지망생이 대부분인 남자 캐디들은 프로 선수(PGA선수)로의 희망을 접고 떳떳하게 남들 앞에 내세울 만 한 직업이라고 하기에는 망설여지는 남자 캐디의 정체성 형성과정의 시기라고 생각된다.

(5) 남자캐디의 직업적 전망

연구자가 현장 조사해 본 결과 골프가 완전히 대중화가 되어있는 호주나 말레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는 대부분 플레이어들이 캐디 없이 골프 경기를 하고 있으며(No-Caddie), 플레이어가 캐디의 경기보조를 원할 경우에만 캐디를 투입 시켜 주는 정도이다.
우리나라에서처럼 골프장에 캐디가 상주(常住)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동계시즌에 우리나라의 골퍼들이 많이 찾는 동남아시아의 태국이나 필리핀, 중국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는 현상이었다. 당연히 캐디가 경기보조를 해야 하는 현재의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선진국에서도 골프가 대중화되기 전에는 캐디의 경기보조가 있었으나, 요즘은 TV를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전문 직업선수들만이 캐디, 그것도 대부분 남자 캐디를 동반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골프선진국과 비슷한 캐디문화의 변화를 겪고 있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골프문화의 변화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최근 골프산업 및 골프문화의 발전이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연간 내장객이 거의 일천오백만 명에 이르고 있어 골프문화의 새로운 변화가 생기고 있다.

2001년 연구(곽노철, 2001)에 의하면 캐디들은 20대와 3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30대 여성들이 81.5%를 차지하고 있으며, 30대 이상 여성들은

Collection @ chosun

18.5%에 그쳐 젊은 여성 중심의 직업 영역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연구(김홍백. 최상범)에 의하면 경기보조원들의 연령과 교육수준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하여 점차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여성위주의 직업에 남성캐디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미혼여성에서 기혼여성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학력수준에서도 그 수준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점차 캐디직업이 전문화로의 인식 변화에 대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캐디직업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입지를 확고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가고 있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캐디 문화를 비롯한 골프의 문화가 변화하고, 골프를 즐기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골프장의 공급이 많아지면서 골프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빠른 속도로 발전해 가고 있다.

급격하게 늘어나는 골프인구는 새로운 골프장의 건설을 부추기고 있어, 2008년 한국골프경영협회자료에 의하면 311개소의 골프장이 운영 중이며 110개소가 건설 중, 미착공이 19개소로 앞으로 440개소의 골프장이 운영될 예정이다. 1개 골프장에서 일어나는 고용창출은 평균 228명이며, 캐디는 109명으로(김한룡, 2006) 앞으로 완공되어질 129개소에 개장 시 필요한 고용인원은 29,412명으로 그중 캐디는 14,061명의 고용 창출이 이뤄진다.

이렇게 캐디직종의 전망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노동 강도가 강한 캐디직업은 현재 많은 젊은 여성들에게는 3D업종으로 분류되기도 한다고 한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경제력을 확보 할 수 있는 직종으로 여기고 있어서 젊은 여성캐디들이 단기간 종사 후 이직을 하는 현상으로 인해 여성캐디들의 연령층이 높아지고, 점차 남자캐디들의 입지가 넓어져가고 있다. 갈수록 캐디 확보가 어려운 각 골프장에서는 신규 캐디 채용을 일부 전동카트 도입으로 대체하고, 남자캐디를 고용하므로서 인력 부족현상을 극복하려 하고 있으며, 일부 골프장에서는 노 캐디(No-Caddie)제도를 도입, 운영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많은 시간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골프의 대중화가 진행되어야 캐디가 없는 노 캐디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골프장이 많아 질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골프문화의 혁신이 없는 한 우리나라의 골프 문화적 정서로 볼 때 캐디라는 직종의 갑작스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여 아직은 전망이 비교적 밝다고 할 수가 있다.

Collection @ chosun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일반화를 목적으로 대규모의 표집을 대상으로 하는 양적 연구와는 달리 연구자가 관심을 두고 있는 특정한 사례나 사건 그리고 현상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연구(김영철, 2006)하여 이해하려고 하는 질적 연구이다. 다시 말해 질적 연구방법론을 선택하는 까닭은 '특정한 것'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자 함이지, 많은 것들에서 보편적으로 진실에 해당하는 것을 발견하고자 함이 결코 아니다(허미화, 1994).

그동안 양적연구를 통하여 외부자적인 입장으로 캐디들의 실태를 파악해보는 연구에서 탈피하여, 남자캐디들의 문화에 직접 참여 관찰하고 이 집단의 문화를 거시적이거나 미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며, 또한 집단구성원의 내부자적 관점(emic) 또는 외부자적 관점(etic)에서 그 문화를 해석해 가는 방법(Creswell, 2007)인 질적 연구전통중 문화기술지 연구법을 채용하였다. 체육 분야에서 질적연구는 비교적 새로운 분야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질적 연구는 인류학과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등의 분야에서 오래전부터 사용해 왔으나 체육 분야에서는 1980년대 후반에야 소개되고 있다(강상조, 2006). 체육 분야에서 비교적 새롭게 사용되고 있는 질적 연구방법의 장점을 활용하여 요즘 유망 업종으로 서서히 부각되고 있는 우리나라 남자캐디들의 문화를 조명(照明)해보고 이해하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간단하게 문화기술지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그리고 연구 설계내용을 살펴본 후, 본 연구를 위해 준비되어있는 연구자의 위치, 연구 참여자의 선정, 자료수집 방법, 사전조사, 자료 분석 방법, 연구 자료의 진실성과 윤리성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A. 연구 설계

이 연구는 우리나라 남자캐디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그들의 생활영역으로 접근, 탐색하여 남자캐디들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이해하는데 연구의 주안점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의 문제들을 탐색하기 위하여 문화기술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 연구의 진행과정을 개략적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Collection @ chos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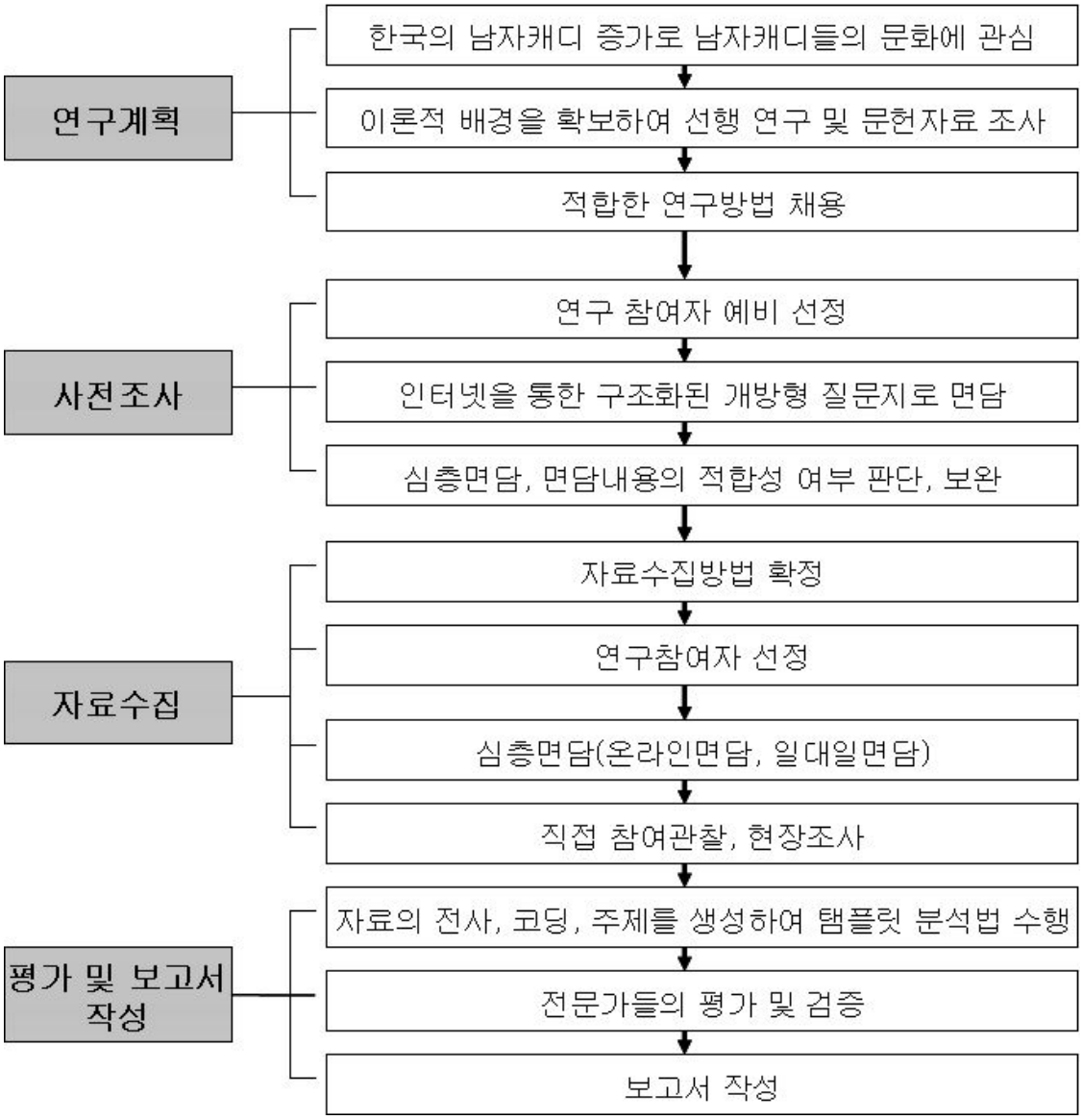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의 진행과정

Collection @ chosun

한국의 남자캐디 증가로 남자캐디들의 문화에 관심을 갖고 본 연구의 가능성과 방법을 사전 검토해 보기 위하여 각종 골프 행사에 직접 참여하여 골프장에 형성되어있는 전반적인 골프장 문화를 체험하였으며, 자료수집과 우리나라 남자캐디들의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이 적정한지를 KPGA 투어프로(정회원)2명, 그리고 20명 안팎의 연구원 대부분이 질적 연구방법으로 체육학을 연구하고 있는 K대학교 스포츠사회학 연구실의 연구원들과 협의를 거쳐 연구의 주제가 창의적이며, 방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여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였다.

B. 연구자의 위치

문화기술적 연구의 가장 큰 특징은 연구자의 눈과 귀와 감각이 연구도구로 쓰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문화현상을 연구하기 위하여 면담이나 관찰을 수행해야 하는 연구자의 연구를 위한 사전준비와 전문성은 연구수행 결과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자가 남자캐디라고 하는 직업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집단의 문화현상을 연구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골프문화를 두루 관찰하는 것은 질적연구에서 연구자의 연구를 위한 사전 준비과정으로써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사료된다. 직접 보고 느끼는 체험을 통해 연구하기 위하여 수많은 라운딩으로 외부자적 입장에서 골프장 전반적인 문화를 미리 경험하고 관찰을 함으로서 남자 캐디 문화를 연구할 수 있는 사전준비를 하였다. 그래서 연구자는 2005년 7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남부지역 골프장인 전남지역의 광주CC, 파인힐스CC, 함평다이너스티CC, 골드레이크CC, 무안CC, 무등산CC, 아크로CC, 전북지역의 군산CC, 제주지역의 로드랜드CC, 한라산CC, 라온CC, 더 클래식골프장등을 중심으로 수시로 라운딩 하면서 골프문화를 관찰하였다. 또 본 연구의 주제인 남자캐디의 문화를 살펴보기 전에 골프장에 형성되어있는 전반적인 골프장 문화를 내부자적 입장에서 체험해보기 위하여 티칭프로 선발 실기능력테스트, 상금대회, 전지훈련 등 보다 전문화되어 있는 골프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표 6>과 같은 각종 골프 행사에 직접 참여하여 골프문화를 참여관찰하기도 하였다.

Collection @ chosun

표 6. 전반적인 골프문화 관찰 현황표

일시	장소	참여내용	자료내용
2005. 7.22	부산 동부산골프장	티칭프로 실기능력 테스트(P.A.T)	전반적인 골프문화
2005. 8. 22	충주 임페리얼골프장	티칭프로 실기능력 테스트(P.A.T)	전반적인 골프문화
2006. 2. 26 - 3. 2	중국, 주하이 Lakewood G.C	오픈상금대회	중국 골프장 문화
2007. 1. 21 - 26	중국, 주하이 Golden Gulf G.C	오픈상금대회	중국 골프장 문화
2007. 1. 30 - 2. 2	태국 : Watermill G.C Nithern Rangsit G.C Bangsai C.C	동계훈련지	태국 골프장 문화
2007. 4. 9	청주 그랜드골프장	오픈상금대회	전반적인 골프문화
2008. 1. 3 - 1. 15	말레시아 임피안 골프장	동계훈련장	말레시아 골프장및 남자캐디문화
2008. 3.10 - 15	호주:ST.Michal's Golf Club, Caden Lakeside Golf Club, Kooindah Water Golf Club	현장조사	NO-Caddie제도

본 연구자가 골프 관계자들과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Rapport;라포[6]) 하면서 내·외부자적 관점으로 관찰할 수 있었던 것은 연구자가 10여 년 동안 주니어 골프선수들을 지도하고 있으며, 세계프로골프협회(WPGA), 미국골프지도자연맹(USGTF), 골프2급경기지도자, 골프 3급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등을 취득하여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질적연구방법의 능력을 높이고 특히 골프문화에 관한 질적연구의 사전 준비과정을 건실하게 하기위해서 주니어골프선수들의 하위문화에 관한 연구(김응식·윤경, 2007), Teaching Pro 선발에 관한 질적사례연구(김응식·윤경, 2007), 프로골퍼들의 동계훈련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김응식·윤경, 2008)등을 통하여 질적 연구에 대한 사전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경험과 사전 연구 수행은 본 연구진행에 대단히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6) 라포(rapport);감정이입, 상호신뢰, 이해, 공감대, 우정 등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라포는 측량될 수 없는 인간관계의 한 면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인류학적 현지조사에서 라포는 현지조사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윤형숙, 1996).

Collection @ chosun

C. 연구 참여자 선정

질적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주체로 연구주체와 연구현장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이해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Creswell, 1994). 따라서 본 연구는 캐디경력이 3년 이상이며, 남자캐디의 문화를 탐색하고 이해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하고 참여에 동의한 남자캐디 14명을 질적 연구에서 주로 많이 이용하는 비확률 표집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의도적 표집법(purposive sampling)을 근거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 배경은 다음<표 7>과 같다.

표 7.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 배경

	나이(세)	캐디경력(년)	골프경력(년)	골프핸디캡(타수)
A	29	3	0	0
B	28	3	2.6	83
C	26	3	2	91
D	35	9	4	100
E	22	3	5	80
F	32	3	2	83
G	32	7	4	75
H	31	7	3	95
I	24	6	5	80
J	26	3	2.5	90
K	33	7	4	80
L	31	4	3	100
M	31	4	2	90
N	33	3	2	83

14명의 남자캐디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한 이유는 '여자가 더 귀한 남부지역과 제주도는 남자 캐디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함평다이너스티 골프장과 군산레이크필드, 제주도의 로드랜드GC, 나인브릿지, 스카이힐제주 등도 남자캐디를 늘리고 있다.' '남부지역 골프장들은 남자 캐디들의 메카로 뜨고 있다.'(신익수, 2007)고 하여 본 연구자가 남자

Collection @ chosun

캐디의 메카라고 생각되는 남부 및 제주지역의 5개 골프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3년 이상 경력의 남자캐디 중 수시라운딩을 통해 연구자와 라포가 형성 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여론 주도형 남자캐디를 사전 선정하였다. 그 캐디로 부터 추천받은 남자캐디들 중 각각 2-3명씩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D. 자료수집

자료수집 방법으로는 크게 면담, 관찰, 문서분석 등이 있다. 면담은 면담 내용의 구조체계에 따라 구조화 면담, 반구조화된 면담, 비구조화된 면담으로 분류된다. 또한 면담 대상이나 기법에 따라 일대일 면담, 집단 면담, 또는 전화 면담으로 구분된다(유정애, 2004). 최근에 온라인을 활용한 대화방법과 면담은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서 하게 되는 상담과 비교하였을 때 여러 가지 점에서 긍정적인 역할(김영천, 2006)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의 면담방법으로 인터넷과 전화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었다.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차분하게 앉아 인터뷰를 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또한 남자캐디들은 본인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많이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온라인을 활용한 자료수집은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수시로 라운딩을 하면서 관찰을 한 전남지역의 G골프장의 어느 남자 캐디는 수차례의 전화 통화와 전자메일을 통한 인터뷰 및 자료요청에도 신분노출을 꺼려해 결국 자료수집 협조를 거절하였으며, 최근 개장된 전남지역의 M골프장 어느 캐디는 라운딩을 하면서 간단한 인터뷰를 하고 차후 인터뷰를 위해 연락처까지 제공 받았으나 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다른 남자 캐디를 통해 자료를 요청해보십시오. 죄송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본인의 신분노출이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는 이유였다. 그래서 심층면담을 위한 사전 예비조사 방법으로 전자메일을 통해 최근 스포츠교육학과 스포츠 심리학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개방형 질문지(백종수, 2004)를 이용하였다. 이렇게 개방형 질문지, 면담과 관찰, 문서분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므로써 자료의 다각적인 검증을 하는데 효과적이다.

Collection @ chosun

1. 개방형 질문

개방형 질문지법은 면담에만 의존해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런 사실은 연구 참여자들이 면담에서 직접 언급을 꺼리는 견해뿐만 아니라 특히 암묵적인 이해를 얻거나 신봉이론(theory-in-use)을 알아보고자 할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Maxwell, 2005).

통상적으로 질적면담은 심층적(in-depth)이고, 반구조화된(semi-structured), 또는 느슨하게 구조화된(loosely structured)형태의 면접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질적 면담에 대한 정의는 사회과학의 특정 분야에 따라서, 그리고 같은 학문분야 내에서도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일부 연구자들은 질적 면담이 항상 그리고 필연적으로 반구조화되거나 느슨하게 구조화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반면, 일부에서는 구조화된 질문지에서 사용되는 개방형 질문(open ended question)도 질적 면담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Mason,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남자캐디들에게 제공된 사용된 구조화된 개방형 질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a. 남자캐디의 개인적 특성(特性)은 어떠한가?
(1) 캐디를 시작하게 된 동기(動機)는 무엇인가?
(2) 캐디로서 목표(目標)는 무엇인가?
(3) 개인적인 여가활동은 어떠한가?
(4) 캐디에 대한 시각(視覺)은 어떠한가?

b. 직업캐디로 적응과정은 어떠한가?
(1) 직업현장에서 여자캐디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2) 캐디로서 골퍼(고객)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c. 남자캐디로서 직업의식은 어떠한가?
(1) 서비스 정신은 어떠한가?
(2)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하는가?
(3) 직업인으로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가?

Collection @ chosun

(4) 캐디를 전문 직업인으로 생각하는가?
(5) 직업으로서 장래성은 어떠한가?
(6) 이직을 생각하는가?

d. 어떤 일탈적 문화가 형성 되어있는가?
(1) 가장 힘든 일은 무엇인가?
(2) 남자캐디가 가지고 있는 일탈적 문화는 무엇인가?

이렇게 수집된 개방형 질문지를 분석하면서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할 때는 전자메일을 통한 면담과 일대일 심층면담을 하였다.

2. 심층면담

본 연구에서는 '캐디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직업캐디로 적응은 어떠한가?' '남자캐디로서 직업의식은 어떠한가?' '어떤 일탈적 문화가 형성 되어있는가?' 라는 질문에 자유롭게 답변할 수 있는 개방형 질문지를 먼저 연구 참여자들에게 전달하여 효율적이고 심층적인 면담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렇게 제공하여 수집된 개방형 질문지 자료에서 그 내용이 부족한 경우 수집된 자료와 면담내용의 구조체계에 따라 <표 8>과 같이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캐디의 특성상 4-5시간의 라운딩중 자연스런 면담과 별도로 외부장소에서 만나는 경우 1회 약1시간씩 면담하였다. 면담 시 보완해야 할 내용은 차후에 E-mail 이나 전화를 통하여 틈틈이 면담하였다. 이때 면담내용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 녹음기(Voice Recoder YV-150)를 통한 녹취를 한 다음 자료내용에 따라 분석, 기술하였다.

dCollection @ chosun

표 8. 심층 면담 노트(예)

Depth Interview Note NO.				
연구참여자	이름;0 0 0 나이; 26 구력; 3 경력; 3 미혼	면담일시 : 2008. 2.10	장소 : 제주 0 0 골프장	
면담주제		면 담 내 용		기타
1. 남자캐디의 개인적 특성은 어떠한가? 1) 동기 2) 목표 3)골프경력(실력) - 앞으로 배우고 싶은지? 4) 개인적 취미		1) 캐디가 된 동기 : 골프를 가깝게 접할 수 있어서 시작했습니다. 2) 앞으로 목표 : 일하면서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을 얻고 싶습니다. 3) 골프경력(실력) - 앞으로 배우고 싶은지? 3 년, (평균 91타) 4) 개인적 취미? 스포츠는 다 좋아합니다.		
2. 직업캐디로 적응과정은 어떠한가? 1) 직장 내 여자캐디들과의관계(배타적시각?)		남자캐디들과 누나 동생 사이처럼 잘 챙겨주고 근무 후에 식사나 술을 마시는 거 같습니다. -이하생략-		

3. 관 찰

질적연구에서는 관찰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의미나 관점 등을 추론해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연구자는 2007년 3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남부지역 골프장인 전남지역의 함평다이너스티골프장, 골드레이크골프장, 무등산골프장, 전북지역의 군산골프장, 베어리버골프장 제주지역의 로드랜드골프장, 스카이 힐골프장, 더 클래식골프장 등을 수시로 라운딩 하면서 선정된 연구 참여자를 비롯한 남자캐디들을 관찰하여 그 내용들은 메모지, 스코어 카드 등을 이용하여 메모 하였다가 <표 9>와 같은 방법으로 깨끗하게 전사하여 파일로 정리하였다.

dCollection @ chosun

표 9. 관찰노트(예)

Observation Note		File N0.2007-01	
관찰일시 :2007. 00. 00.		장소 : 전남 00골프장	
관찰주제		관찰내용	기타
골프장 현황	홀수	18홀-회원제	
	그린	One green	
	전동차	5인승 골프카	
	잔디	페어웨이-켄터키블루그라스, 라이그라스 그린-벤트그라스, 티그라운드-라이그라스	
		남자캐디가 많이 활동하고 있음	
캐디 현황	캐디피	8만원	
	남자캐디	-.재빠른 몸놀림으로 경기에 도움을 줌.	
		-.앞팀 캐디인 선배여자캐디에게 선배님이라는 호칭을 붙여가며 무전교신을 하였음-위계질서 잡혀있음	
		-.우리 팀 남자 캐디가 약간 서툰 진행을 할 때 무전으로 도움을 많이 주었음-평소에도 여자캐디들이 잘 챙겨준다고 함	
		- 이하생략-	

dCollection @ chosun

E.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남자캐디들의 하위문화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를 위하여 1차로 개방형 질문지에 의해 수집된 자료와 2차로 전자메일을 통한 면담내용 및 심층 면담시 녹음으로 수집된 자료들, 그리고 관찰을 통해 메모된 내용들을 컴퓨터를 이용해 깨끗하고 자세하게 전사(transcription)하여 파일로 저장 한 다음, 텍스트 자료의 핵심적인 주제들을 목록(템플릿,template)으로 제작하여 접근하는 템플릿분석법(Template analysis)(김영천, 2006)을 수행하였다.

템플릿분석은 코드를 질서정연하게 배열하므로 써 해석을 보다 수월하게 하고 주제 간의 내용을 쉽게 비교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자료 분석 절차를 보면, 첫째 연구문제에 대한 초안 템플릿을 작성하였으며, 둘째 주제 간의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의 서열을 교정하고, 자료내용에 따른 주제간 재배치를 통하여 템플릿의 구조를 더욱 조직적으로 정열하고 수정하여 최종 템플릿을 완성하였다. 셋째 최종 수정된 템플릿에 의해 각 주제별로 분류하여, 넷째 파일로 정리하는 전산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파일로 분류된 주제들을 세그멘팅[7]한 후 최종 템플릿으로 수정되는 과정에서 미리 생성된 하위주제로 코딩[8]하여 자료에 사용되도록 하는 분석 작업을 수행하였다.

템플릿의 일부는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다음과 같은 초안 템플릿으로 작성되었다.

a. 남자캐디의 개인적 특성(特性)은 어떠한가?

(1) 캐디를 시작하게 된 동기(動機)는 무엇인가?

(2) 캐디로서 목표(目標)는 무엇인가?

(3) 골프경력(실력)은?

(4) 개인적인 취미는 무엇인가?

7) 세그멘팅(Segmenting)은 어떤 자료들(문장들, 단락들, 대화들, 관찰 자료들 등에서) 그 자료의 의미나 요지가 잘 드러나 있는 문장 또는 문장들을 추후 코딩을 위하여 괄호하거나 줄을 긋는 작업을 말한다.(김영천, 2006. P476)

8) 코딩(coding)은 연구자가 전사된 자료를 읽으면서 텍스트의 특정한 부분이 어떤 특정한 주제나 의미를 뜻한다고 생각이 될 때 그 내용에 대하여 그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이름으로 명칭을 부여하는 작업을 말한다. (김영천, 2006. P468)

Collection @ chosun

b. 직업캐디로 적응과정은 어떠한가?

(1) 직장 내 여자캐디들과의 관계(배타적 또는 우호적인가?)

(2) 골퍼들과의 관계 (골퍼들과 어떻게 적응하며, 골퍼들은 남자캐디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은가?)

① 남자골퍼들과의 관계

② 여자골퍼들과의 관계

3) 직업으로서 캐디에 대한 인식(본인의 인식과 사회적 인식)

① 나는 캐디직업을 이렇게 생각한다.

② 사회에서 남자캐디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4) 직업으로 장래성은?(주변인에게 추천 할 만한가?)

c. 남자캐디로서 직업의식은 어떠한가?

1) 서비스정신

2) 책임감

3) 자부심(경기에 도움?)

4) 여자캐디와 비교해서 남자캐디만이 갖고 있는 문화는 무엇일까?

5) 본인은 캐디를 전문직업인으로 생각하는가?

d. 이직의도는 어느 정도이며, 이유는 무엇인가? (일탈행위 등)

(캐디직업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이직의도)? (왜?)

1) 캐디 일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

2) 규범에 벗어나는 일탈적 행위(캐디들의 일탈행위, 골퍼들의 일탈행위, 등등)

위와 같은 초안 템플릿을 통해 텍스트를 읽고 해석하면서 주제 간에 내용이 연구자의 예상과 다른 분석이 되어 대학교수와 스포츠사회학 박사학위를 가진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거쳐 각 연구문제의 주제에 대한 재구성을 통하여 템플릿 구조를 더욱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수정하여 <표 10>과 같은 최종 템플릿을 완성하였다.

dCollection @ chosun

표 10. 한국 남자캐디 문화에 대한 최종 템플릿

A. 한국 남자캐디의 특성	
1. 캐디를 시작하게 된 동기(動機)	
2. 캐디로서 목표(目標)	
B. 직업캐디로 적응	
1. 가장 힘든 일	
2. 여자캐디와의 관계	
3. 남·여골퍼와의 관계	
4. 여가활동	
C. 직업의식	
1. 서비스정신	
2. 책임감	
3. 자부심	
4. 전문성	
5. 장래성	
6. 사회적 인식	
7. 직업만족	
D. 일탈	

Collection @ chosun

텍스트 화된 자료들을 최종 수정된 템플릿에 의해 분석한 후 각 주제별로 분류하여 <표 11>과 같이 파일로 정리하는 전산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표 11. 연구문제에 대한 주제 분류표(예)

파일명	2-1 적응(女캐디와의 관계)
주제	2. 직업캐디로 적응과정은 어떠한가?
하위주제	1)직업현장에서의 여자캐디들과의 관계

2-1-A ; 엄청 우호적입니다. 지금까지 캐디는 여자들만 했고, 처음 남자캐디가 들어오면, 신기해하고, 주로 20대 초,중반 남자들이 많으니깐, 매우 친절합니다.

- 생략-

2-1-C ; 남자캐디들과 누나 동생 사이처럼 잘 챙겨주고 근무 후에 식사나 술을 마시는 거 같다

2-1-D ; 우호적인관계 이다.

2-1-E ; 골프장에는 하우스번호가 있는데 번호대가 가까우면 매일 얼굴을 보기 때문에 서로 챙겨주고 골프장내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생략-

2-1-J ; 상당히 우호적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조금씩 남자캐디가 있는 골프장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기존에 남자캐디가 없던 골프장에 남자캐디가 생겨 여자캐디와 같이 지내다 보면 아무래도 같은 여자보단 이성인 남자 캐디들을 더 잘 챙겨 주는 걸 눈에 띄게 볼 수 있습니다.

-생략-

주)2-1-A는 2=주제번호, 1=하위주제번호, A= 연구 참여자 기호이다.

이상과 같이 각 주제별로 분류(파일작업)한 다음, 세그멘팅(Segmenting)하여 최종 템플릿으로 수정되는 과정에서 미리 생성된 하위주제로 코딩하여 자료에 사용되도록 하였다.

Collection @ chosun

F. 자료의 진실성

자료의 진실성 확보를 위한 삼각검증법(Triangulation), 혹은 다각도 분석법을 '자료의 삼각검증법'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삼각검증법에는 여러 가지 측면의 삼각검증법이 존재한다. 덴진(1978)은 '이론 다원화, 연구방법의 다원화, 관찰자의 다원화, 자료의 다원화'라는 4가지 종류의 삼각검증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이론의 다원화(Theory triangulation)는 하나의 자료를 해석하기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이론과 관점을 활용하는 것이다.

둘째, 연구방법의 다원화(Methodological triangulation)는 한 가지 연구에서 여러 가지 연구 방법을 혼용하는 것이다.

셋째, 관찰자 다원화(Observer triangulation)간(間)에 상호주관적 동의를 얻기 위해 한 연구에서 자신들의 관찰을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찰이 되도록 다수의 관찰자가 관찰을 하는 것이다.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함께 하게 함으로써 범주나 중심주제가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지도 알아보는 '분석을 이용한 다원화'도 시도할 수 있다.

넷째, 자료 다원화(Data triangulation)는 한 가지 이상의 자료출처(면접, 문서자료, 관찰자료 등)를 사용하는 것이다(신경림 외. 2003). 이에 따라 자료수집 및 분석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편견으로 인하여 연구 자료의 진실성이 왜곡될 수 있어 3명의 연구 참여자의 재검토, 대학교수와 스포츠사회학 관련 박사학위를 가진 전문가 그리고 2명의 KPGA프로들과의 협의, 한가지이상의 자료 출처 즉, 면접자료, 관찰자료, 문서자료 등 자료다원화를 통한 삼각검증법으로 자료의 진실성을 확보하였다.

G. 연구의 윤리성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으로서 자료수집의 특성상 현장작업을 할 때나 연구 참여자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외부자적인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복지와 안녕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작업(김영천,2006)을 하였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Collection @ chosun

골프문화의 사회적 특성상 캐디는 여자직업의 전유물처럼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여서 남자 캐디들이 신분노출을 많이 꺼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자료수집 전에 수시 라운딩을 통해 라포가 형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여론주도형 남자캐디를 미리 접촉하여 다른 남자캐디들을 추천받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라포는 감정이입, 상호신뢰, 이해, 공감대, 우정 등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측량될 수 없는 인간관계의 한 면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라포'는 현지조사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라포가 형성되지 않으면 자신이 원하는 정보와 자료를 얻을 수 없고 성공적인 연구를 수행 할 수 없다(윤택림, 2005).
이렇게 선정된 남자캐디들에게 남자캐디 문화가 사회문화로의 연착륙을 위한 선구자적 입장을 충분히 인지시키고 연구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한 다음, 골프문화 연구 자료로만 사용할 것과 익명성을 전제로 개방형 질문지 자료를 제공받음으로써 연구의 동의로 가름하여 연구의 윤리성을 확보하였다.

Collection @ chosun

Ⅳ. 한국 남자캐디에 대한 이해

골프 규칙 제2장 10호에 규정하기를 골프장에서의 캐디(caddie)란 '플레이 하는 동안 플레이어의 클럽을 운반 또는 취급하거나 본 규칙에 따라 플레이어를 원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서의 캐디들은 캐디라 불리길 바라지 않는다(백병주 외, 2000)고 한다. 그래서 여러 연구(최순임, 2000; 김제호, 2001; 곽은창 외,2003 ; 이계윤 외, 2005; 장진,2007) 등에서도 경기도우미, 경기보조원 등으로 쓰이고 있으나 여전히 골프현장에서는 캐디로 많이 쓰이고 있다.

여자들만의 직종으로 인식되어 오던 캐디라는 직업을 처음에는 주로 남자 프로선수지망생들의 안정적인 연습장소 확보와 훈련 경비조달 등의 목적으로 캐디를 하게 되었는데, 여자캐디들의 이직현상과 급속도로 증가하는 골프장으로 인해 남부지방과 리조트형 신생골프장을 중심으로 남자캐디의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이렇게 한국 스포츠문화 현장 속에서 남자캐디들이 가지고 있는 하위 문화적 구성요소들이 서로 부딪치고 적응되어 가면서 형성되는 그들만의 정체성을 탐색하고, 그들의 하위문화를 이해해 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문제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생성된 주제와 개념들을 문화기술지 방법으로 분석·해석하였다.

A. 한국 남자캐디의 특성(特性)

1. 캐디를 시작하게 된 동기(動機)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내 자신의 행복은 물론 가족의 행복을 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최근 들어 우리사회에서 웰빙이란 말이 자주 쓰이고 있다. 문화적 트렌드로 이해되는 웰빙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삶의 유형이나 문화를 일컫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김희봉 2005).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웰빙적인 인생을 누구나가 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

Collection @ chosun

복한 삶을 위한 요소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질 높은 삶을 위한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제적 요소이다.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 체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재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들의 행복한 삶의 구성요소로써 경제적인 요소가 크게 부상하게 된 것은 1997년 IMF시대 경제적 위기상황을 극복해나가는 과정을 체험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IMF시대 한국 사람들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김의철· 박영신, 1999)에 의하면, 경제적 스트레스가 매우 급격하게 극단적인 수준으로 증가하였음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제는 IMF의 지원 대상 국가에서 벗어났지만, 한국 경제가 여전히 침체의 늪에 빠져 있고, 한국사회 전반에 경제 불안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김의철·박영신, 2004).

이 어려운 경제 상황 하에서 자신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하여 본인이 원하는 프로선수도 되고, 그 목표를 위해 훈련경비를 마련하고자 경제적 여유도 확보해야 하는 이들이 '돈을 벌기 위하여' 캐디라는 직업을 선택하였다.

> 10명중에 9명은 돈 때문에 캐디를 합니다. 연습생으로 운동을 할 수도 있지만, 돈 문제도 있고 돈을 벌면서 운동할 생각인데. 현실적으로 힘들지요. 운동만 해도 될까 말까한데……, (1-1-A)

> 작년에 생체 3급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밑천을 모아 실내 스크린 골프 연습장이나 자그마한 제 사업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1-2-J)

> 프로골퍼가 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골프를 취미로 하면서 돈을 모아 개인적인 일을 따로 하고자합니다(1-2-D)

백병주·이석동(2000)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캐디 42%가 경제적 이유로 캐디를 시작했듯이 남녀를 불문하고 대부분의 캐디들은 단기간에 고소득을 올릴 수 있으며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자유로운 직업으로 생각하고 캐디일 을 시작하게 된다. 조선일보 인터넷 뉴스(이석우, 2008.06.23일자)에 의하면,

dCollection @ chosun

우리나라 골프장 경기 보조원(캐디)들은 팁을 제외한 경비 보조요금(캐디피)으로 연평균 23,316,000원(월 평균 1,943,000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리서치 전문기관인 ㈜메트릭스에 의뢰해 23개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 525명의 지난해 소득을 조사한 결과다.
조사에 따르면, 캐디 중 2,500만-3,0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41.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00만-2,500만원이 32.1%, 1,500만-2,000만원이 17.1% 순이었다. 3,0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경우는 3.9%였다. 연령별로는 30대가 절반(56.2%)을 넘었고, 20대가 22.2%, 40대가 20.4%로 나타났다. 50대 이상의 캐디는 1.1%에 불과했다. 메트릭스의 관계자는 "평균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캐디들은 고졸 출신의 30대 여성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주로 30대 여성캐디가 월 평균 약 2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의 강도가 높고 골퍼들과의 마찰 근무환경 등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혀 6개월도 못되어 이직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연간 신입캐디의 이직률은 50%를 상회한다(김석겸, 2002). 이에 따라 각 골프장마다 캐디 부족현상이 일어나 부족한 여자캐디를 대신하여 고수익 직업임을 내세워 남자캐디를 신입캐디로 확보하려고 하고, 남자들은 고소득 직업을 찾아 캐디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2. 캐디로서 목표(目標)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캐디들의 주된 목적이 '돈 벌기' 위한 선택이긴 하지만 남자캐디가 시작된 근원을 찾아보면 프로선수를 꿈꾸는 골프 선수들이 연습장소도 제공 받으면서 실전 훈련에 도움이 되기 위함이기도 하다. 목돈을 모아서 개인사업을 목표로 하는 사람, 그리고 골프와 관련되어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많음을 현지관찰과 면담을 통해서 볼 수 있었다.

프로골퍼가 되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또 골프장 직원을 하고 싶어서, 캐디마스타나 진행요원으로 취직할 목적으로 하는

Collection @ chosun

> 친구들도 있어요. 몇몇 그쪽으로 풀리기도 해요. 골프장이 점점 늘어나고 대중화 되면서, 문이 넓어졌다고 해야 되나? 그래도 남자캐디가 마스타하고 직원하는거, 그리 반기지는 않아요. 주로 경력이 오래된 여자들이나 티칭프로, 골프자격증이 있거나, 골프쪽 공부를 한사람을 원합니다.(1-1-A)

> 처음엔 골프장 연습생을 하려고 했지만 적은 월급으로는 도저히 혼자 벌어서 운동을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라운딩 종료 후 개인적으로 연습라운드를 나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1-1-E).

남자캐디들은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보다 질 높은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비록 불안정하지만 남자캐디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고, 더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하여 힘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남자 캐디들은 대부분 프로에 입문하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시간 외에 여가시간을 활용해 개인적인 연습에 몰두하고 있어 고객의 코치 역할도 가능한 만큼 경기력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강원일보, 2009. 3.3일자 기사)

B. 직업캐디로 적응

1. 가장 힘든 일

남자캐디들은 캐디라는 새로운 직업에 적응하기 위하여 많은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경험할 것이다. 눈 비 바람 더위 추위와 같은 환경적인 요인과 4-5시간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해야 하는 체력적인 요인 등과 같은 어려움 보다 인격적 무시와 같은 정신적인 요인을 가장 힘든 일로 꼽고 있다.

> 남자캐디 같은 경우 서비스직이다 보니 깔끔한 외모를 원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고등학교에도 없는 두발 단속을 합니다. 뒷머리가 길거나 구레나루가 길면

Collection @ chosun

깔끔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짧은 머리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J-4-2)

아무래도 손님을 상대하는 일이라서(부자, 깡패)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캐디라고 해서 낮게 보고 말도 함부로 하는 분들도 가끔 계시고, 진행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아요. (E-4-1)

골퍼도 골퍼지만 골프장 측에서 캐디에 대한 가족의식도 없이 캐디를 골프장 하인 취급할 때가 종종 있다. 그럴 땐 많이 힘들다.(B-4-1)

매너 없는 골퍼들과의 갈등 그리고 인격적 무시, 직장 내 직업인으로서 푸대접 등은 곽은창·황승연(2000), 손석정(2001), 박홍규(2001), 박준성(2002), 곽은창·곽노철(2003) 등 이외에도 많은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는 여자캐디들의 스트레스 요소들이다. 그렇지만 여자 캐디들이 근무하면서 가장 힘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첫째로 날씨(비, 더위, 추위)를(백병주·이석동, 2000)꼽았다.
하지만 남자 캐디들은 골프장 측의 인권무시적인 행동인 두발단속, 골퍼들의 무례한 행동과 하인취급 등의 인격적 무시를 당할 때가 가장 힘든 일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골프장이나 골퍼들도 캐디들을 골프라는 한 울타리 안에서 활동하는 가족 같은 공동체의식을 갖고 대해야 하겠으며 골퍼들의 골프 입문과정에서 기술교육과 함께 예절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도 골프문화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여자캐디와의 관계

직장은 학연, 지연, 혈연, 그리고 우정이 아닌 '일'을 위해 모여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다. 수직관계인 상사와 부하직원, 선배와 후배사이가 있고, 수평적관계인 동료관계가 있는 곳이다. 이러한 직업환경 속에서 자기가 어려운 입장에 처했을 때 자기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사람을 얻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남자 동료 선후배는 물론이고 여성동료 선후배들과도 개별적인 유대를 가져야 한다. 직장의 업무능력 만큼이나 좋은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새롭게 자리 잡아 가고 있는

dCollection @ chosun

남자캐디들은 직장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 동료들과의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직장에 잘 적응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성캐디들과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 엄청 우호적입니다. 지금까지 캐디는 여자들만 했고, 처음 남자캐디가 입사하면, 신기해하고, 주로 20대 초,중반 남자들이 많으니까, 매우 친절합니다. 남자들 군대의 PX에서 젊은 여자를 본다던가. 여군 보면 군인들 좋아하잖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좀 있으면, 남, 여 캐디커플이 많아져요. 자주보고, 눌러도 다니고, 술도 많이 먹고, 그러다 보면 눈이 맞아요. 아무리 골프장에서 못 만나게 하고 제재를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일단 밖에서 사귈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캐디 특성상 다른 사람들 쉬는 주말이나 명절, 연휴엔 더 바쁘고, 같은 일을 하니 말도 잘 통하고, 골프장은 주로 산이나 외진 곳에 있다 보니, 서로 쓸쓸하고 외롭다보니, 캐디커플이 많습니다. (2-1-A)

> 골프장에는 하우스번호가 있는데 번호대가 가까우면 매일 얼굴을 보기 때문에 서로 챙겨주고 골프장내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2-1-E)

> 상당히 우호적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조금씩 남자캐디가 있는 골프장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기존에 남자캐디가 없던 골프장에 남자캐디가 생겨 여자캐디와 같이 지내다 보면 아무래도 같은 여자보단 이성인 남자 캐디들을 더 잘 챙겨 주는 걸 눈에 띄게 볼 수 있습니다.(2-1-J)

직장 내 구성원들의 원만한 인간관계는 직무의 효율적 수행과 그 직장의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반대로 직장의 구성원들이 서로들 불편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업무수행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직장에서 이탈하는 구성원들이 많아 질것이다. 따라서 남자캐디와 여자캐디들 간에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골프직업 현장은 남자캐디들의 안정된 직장 생활로 잘 적응하는데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Collection @ chosun

3. 골퍼와의 관계

a. 남자골퍼들과의 관계

현재 대부분의 스포츠는 남성위주로 움직이고 있고 남성은 거의 완전히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를 변화시키기는 매우 힘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남성의 헤게모니는 절대적이거나 고정된 현상이 아니라 반동적 측면과 해방적 측면 둘 다 포함하는 역동적인 현상이다(안민석 외, 2002). 그간 우리나라 골프문화는 남성들이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골퍼들의 경기를 대부분 여자캐디들이 맡아 경기에 도움을 주었다. 이렇듯 여성 캐디문화에 길들여져 있던 남자 골퍼들은 남자 캐디의 등장에 저항감을 일으키고 있다.

> 거의 대부분의 남성 골퍼들은 남자 캐디를 싫어한다. 남자라는 이유로 초보 때는 무조건 열심히 하고 뛰어다니면서 극복했지만 경력이 쌓이면서 부드럽게 넘기는 법을 배워 스킬로 승부한다. 확실하게 실력을 보여주면 좋아한다.(2-2-1-B)

> 남자골퍼들과의 관계는 처음엔 대놓고 꺼리는 분도 계시지만 라운딩 중에 이미지 개선하고 남자캐디의 장점을 인식시키려고 노력한다.(2-2-1-D)

> 아직도 기존에 골퍼들을 보면 남자캐디들과의 라운딩이 처음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연습생이나 프로 지망생으로 보죠. 그래서 그런지 거리나 라이 같은 걸 봐 줄때도 여자캐디보다 더 믿고 잘 따라주는 편입니다. 반면에 여색을 즐기는 골퍼들은 아예 남자캐디인걸 보고 체인지를 해달라는 경우도 가끔씩 있곤 합니다(2-2-1-J).

성차별과 관련된 전문직의 특성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고착화 현상이다. 성고착화란 원래 Merton의 지위상황고착화(status-set typing)에서 나온 개념이다. 지위상황고착화란 어떤 계층의 사람이 하나의 지위를 점유할 때 생기는 것으로서 그들이

Collection @ chosun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고려되고 기대되어지는 것을 말한다. 즉 하나의 지위상황은 개인의 사회적 위치를 설명해주며 나아가 그에 합당한 행동규범이 기대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지위상황고착화 개념에서 파생된 것이 직업의 성고착화 현상이다. 어떤 직업이 한 성 (sex)에 의해 다수를 차지하고 그 다수의 성의 규범적 기대에 의해 진행, 운영될 때 그 직업은 성고착화 되었다고 R.K. Merton은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남성 혹은 여성의 직업으로 고착화된 직업에 다른 성이 들어가거나 또는 그 직업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 그 다른 성은 잘못된 성(wrong sex) 혹은 일탈자(deviant)로 취급받으며 심하게는 사회적 제재가 가해지기도 한다.(김정기, 1986)
여성에 의해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캐디문화에서 다른 성인 남성이 직업을 수행하므로써 일탈자로 취급받아 남성골퍼들로부터 저항을 받고 있는 것이다.

b. 여성골퍼들과의 관계

최근 우리나라에 여성 골퍼수가 증가하면서 골프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오고 있다. 한겨레신문 스포츠면 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한겨레신문, 2002. 3. 11일자 기사)

> 많은 골프장에서 여자 락커룸을 증·개축하고 있고 여자회원권을 별도로 분양하는 골프장도 늘고 있다. 또 일요일에 '회원의 날'을 운영하는 것처럼 평일 특정요일을 '여성의 날'로 지정해, 그린피 할인혜택을 주며 여성고객 모시기에 나서기도 한다. 이들 모두가 여성 골퍼들의 파워가 만들어낸 새로운 필드풍경이다. 여성 골퍼들 입장에서는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변화이면서 마다할 이유가 없는 좋은 변화라고 할 수 있다.
>
> 이런 가운데 최근 여성 골퍼들 사이에서 또 다른 신종 불만사항(?)이 대두되고 있다. 다름 아닌 캐디문제다. 며칠 전, 한 여성 골퍼는 전화를 걸어와 여자 캐디에 대한 불만과 함께 남자캐디가 많이 생겨야 한다고 털어놨다. 여자 골퍼와 여자 캐디 사이에는 동성 간에 있을 수 있는 미묘한 감정의 골이 있고, 이것이 신경전으로 잠복해 있

Collection @ chosun

거나 노골화되어 분위기를 망치는 경우가 있다는 게 요지다. 자기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주변 동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항이라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동성 간에 나타나는 여성 특유에 미묘한 감정의 골이 나타나는 골프현장에서 이런 시기에 남자캐디들의 대거 등장은 여성골퍼들로부터 대단한 환영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게다가 골프를 즐기는 여성들 중 40-50대 여성 들이 50%이상을 이루고 있는(전향, 2008) 여성골퍼들의 문화 속에서 자식 같고, 동생 같은 젊은 남자캐디들의 원포인트 레슨과 재빠른 진행, 씩씩한 몸놀림 등은 여성골퍼들로 하여금 남자캐디를 선호하게 하는 요인인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여성골퍼들은 남자 캐디를 좋아한다. 남자라는 이유로 초보 때는 여자 손님이 좋았지만, 이제는 진상 남자 손님이라도 볼을 잘치는 사람이 좋다. 일하기 편하기 때문에……, 여자는 거의대부분 볼을 잘못 친다.(2-2-2-B)

여자분들 은 처음부터 거부감이 없어서 훨씬 편리 합니다. 나이 많이 드신 손님은 아들처럼 챙겨주시기도 하고 여자 골퍼와 남자 캐디는 뗄 수 없는 관계인듯 합니다. 훨씬 진행하는 것도 부드럽습니다(2-2-2-E).

남자캐디를 좋아한다. 남자골퍼가 여자 캐디를 선호하는 것처럼 여자골퍼도 남자캐디를 선호한다. 상호작용의 결과다(2-2-2-O).

우리나라는 남성을 기준으로 한 골프문화가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남성중심의 골프문화 속에서 자신의 주체적 스포츠 활동으로 우리나라의 가부장제적 사회제도 하에 남성의 뒷바라지에 적응되어왔던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자기만을 위한 서비스를 받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욕구가 남자캐디들을 통해 충족되고 있다. 이것이 여자 골퍼들이 남자 캐디를 환영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dCollection @ chosun

4. 여가 활동

현대인에게 있어서 여가활동은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과 더불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생활방식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행복한 삶의 중추적 기능 중에 하나이다. 남자캐디 역시 행복한 삶을 즐기기 위하여 직장생활을 하는데 건전한 여가생활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캐디들에게 있어서 여가활동은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캐디들은 각자 자기 취향에 따라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서 억압된 불만들을 발산시킨다.

> 저는 남는 시간 주로 책을 읽거나 컴퓨터 게임, 술을 자주 먹는 편이에요. 아직 골프는 않쳐요. 맨날 보는 게 골프치는건데, TV에서 골프만 봐도 징그럽더라고요. 남, 여를 떠나서 캐디들이 술을 많이 먹어요. 시간 많고 그때그때 돈도 들어오고, 따로 다음날 업무준비를 한다거나,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 맞거나 추울 때 4-5시간동안 밖에서 뛰고 손님한테 스트레스 받다보면 술생각 많이 나거든요. '노가다'하는 아저씨들도 이래서 술을 많이 먹는구나 하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많지는 않지만, 도박하고 놀음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취미로 골프 치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1-4-A)

> 골프연습장에서 연습하고 골프장에서 손님을 대하다보니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그런지 저녁엔 음주문화가 많습니다(1-4-E).

이외에도 음악 감상, 독서, 컴퓨터게임 등이 남자캐디들의 여가활동으로 나타난다.
스트레스는 어떤 조직이나 집단의 내적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남자캐디라고 하는 조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남자캐디 내적 스트레스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Cooper와 Marshall은 조직 내 스트레스 요인을 보다 더 체계화시켜 직무자체에서 느끼게 되는 직무요인, 역할 갈등 역할모호성 그리고 의사결정 등의 책임 등에서 오는 조직역할 요인, 직무의 불안정성 다시 말해 개인의 기대와 일치 하지 않은 경력의 변화에서 오는

dCollection @ chosun

경력요인 및 행동제약 조직정책 의사소통 그리고 조직문화의 환경이나 시설 등이 주는 분위기요인, 상사 동료 고객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낮은 신뢰감 부족한자원 구성원간의 무관심등을 포함한 모든 개인 간의 스트레스는 개인 간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요인으로써 5가지요인으로 세분화 하여 설명하고 있다.(김동균, 1987에서 재인용)
이렇게 남자캐디들은 '벌당'(소정의 규칙을 위반한 캐디에게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대신 제초작업·디보트, 홀 보수 등 잡일을 시키는 일)등의 직무수행에서 받는 스트레스, 직무의 불안정성 즉 직장의 불안정에서 오는 스트레스, 고객이나 직장상사 등 주변 환경적 요인에서 받는 스트레스, 개인 간에 받는 스트레스 등 이러한 여러 스트레스들을 해소하고자, 남자 캐디들에게는 주로 음주문화가 폭 넓게 자리 잡고 있다.

C. 직업의식

직업의식이란 직업정신, 직업관, 직업적 가치관, 취업의식 등의 용어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직업에 관한 신념, 직업에 관한 가치, 직업을 바라보는 눈, 직업에 관한 생각, 직업에 임하는 태도 등을 의미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남자캐디들이 골프 현장에서 자기일 에 임하는 태도로 서비스정신, 책임감, 자부심과 전문직업인으로 자각 상태, 직업의 장래성에 대한 의식, 사회적으로 캐디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회인식 수준, 직업만족에 따른 이직의향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서비스 정신

서비스의 사전적 의미로는 개인적으로 남을 위하여 돕거나 시중을 듦. ‘봉사’, ‘접대’로 순화(Naver.com 사전)된다. 골퍼들은 캐디들에게 즐겁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서 만족한 경기를 하게 된다.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도움을 받은 경험에 대한 느낌이나 심리적 상태에 의해 정해지게 되는데 이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수단이 서비스 정신이다.
‘정신’은 집단과 집단의 구성원들을 조절하는 보이지 않는 원동력이다. 즉, 조직 내의

dCollection @ chosun

정신은 구성원들이 그들 자신, 고객들을 바라보는 방법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의 행동을 이끄는 핵심 가치, 태도, 신념 등을 반영한다. 이와 같이 올바른 서비스 정신을 어떻게 갖추느냐에 따라 양질의 서비스가 이뤄지고 그것이 직업의 안정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것이다.

> 그 어떤 서비스업종보다도 투철한 서비스 정신과 마인드가 필요하다. 4-5시간 동안 고객과 함께하면서 원하는 타이밍에 서비스를 해야 하고, 어드바이스도 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서비스정신이 강조되는 직업이라 생각합니다.(3-1-B)

> 골프장은 서비스 정신을 빼면 시체이다. 서비스가 좋지 않으면 누가 그런 골프장을 다시 찾겠는가?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 골퍼, 캐디등 모든 사람들을 위한다는 넓은 마음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3-1-G).

> 라운딩에 모시게 된 고객님은 본의든 타의든 저를 고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5시간동안 좋은 서비스로 모시려고 노력합니다(3-2-E).

> 서비스 교육을 많이 해요. 유명강사 초빙도 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노력을 많이 합니다. 손님에게 잘해야 그만큼 자신도 편하거든요. 한번 나가면 4-5시간동안 같이 플레이해야 하는데 손님 비위 거슬리면 자기만 피곤하지요. 골프장 측에서도 많은 요구를 하고 있고, 감시도 많이 합니다. 불이행했을 경우 벌칙, 벌점도 있고요.(3-1-A)

남자 캐디 자신들도 서비스업종으로서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들은 가지고 있다. 유시건(1997), 김한룡(2006)의 연구에서도 제시되었던 것처럼 캐디의 직업의 특성상 골퍼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친숙한 대화를 통해 이용자의 비용적 부담을 상쇄할 정도의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서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캐디 문화를 조성해나가고 있는 남자 캐디들도 스스로 높은 서비스정신과 교육 연수를 통해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dCollection @ chosun

2. 책임감

강한 책임감이 형성되면 높은 수준의 서비스제공과 고객만족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보다 고객 지향적으로 행동하게 될 것이다(김진덕 외 2008). 직장인들은 자기가 맡은 바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그 업무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고 그럼으로써 주변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며 유능한 직장인으로 성장해 간다. 하지만 수입 등을 중심으로 한 직장에서의 불만족 요인 등은 책임 있는 직무 수행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 캐디들 큰 책임감은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골프장과 계약을 하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월급을 받지도 않아요. 여기 다니다가도 좀 더 좋은 골프장이 있으면 옮기고……. 보통 아무 사고 없이 욕 안 먹고 일하고 들어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서 팁이 나오면 좋은 거고. 책임감 보다는 자기 자신이 우선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프장 경기과는 개인주의가 많아요.(3-2-A)

> 솔직히 이건 제가 마음먹은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 일을 천직이라 생각하고 일을 하고 난 뒤에 보상이 크다면 정말 간 쓸개 다 빼놓을 정도까진 아니더라도 정말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겠냐만은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더더욱 오버피(소위'팁')가 금지되고 있어 일을 시작하게 되면 얼른 4시간 반을 빨리 보내고 싶은 맘뿐인 것 같다.(3-2-J)

살펴 본 바와 같이 남자캐디들은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 의해 책임감이 결여된 상태에서 하루하루 일을 하고 있다. 수입에 따른 욕구불만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조직의 관리적 효과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의 불만을 적절한 수준으로 충족시켜 줌으로써 조직의 효율적 관리도 되고 직장의 발전도 기대 할 수 있다.

> 캐디는 골프장의 얼굴인 것 같다. 나 하나로 인해서 골프장이 안 좋다는 말을 듣기가 싫어서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한다(3-2-C).

> 4-5시간 동안 고객님들이 불편 없이 만족스런 라운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편이

Collection @ chosun

다(3-2-D).

손님이 불만을 갖고 때리면 맞아야한다. 그런 정도로 인내와 참을성이 필요하고, 책임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3-2-G)

이상과 같이 소수이긴 하나 캐디들 또한 열심히 노력하고 근면 성실하게 업무 수행을 한다면 골프장의 이미지도 제고하고, 고객들의 만족스런 경험을 제공하므로 써 책임감 있는 캐디로 발전 할 것이다.

3. 자부심

자신이 속한 집단의 가치나 중요성에 대한 평가를 집단자부심(collective self-esteem)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개인이 사회집단의 소속구성원으로서 얼마나 만족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가. 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집단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자신의 지각 및 그러한 집단에 소속되는 것이 정체감형성에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김지경, 2002). 남자캐디들이 골프장 소속 구성원으로서 얼마나 만족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자격조건은 까다롭지 않지만 엄청난 전문지식과 자신만의 스킬을 가지지 못한다면 진정한 캐디가 될 수 없다. 그냥 클럽이나 날라주고 카트 운전이나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대부분의 골퍼들은 캐디가 쉬운 줄 안다. 난 타이거 우즈보다도 캐디를 잘할 수 있다.(2-3-1-B)

주위에 보면 정말 캐디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3-1-J)

캐디를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 자신이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한다면 경기에 도움이 되는 거 같다(C-3-3).

dCollection @ chosun

적어도 골퍼 분들에게 마이너스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D-3-3)

모시고 나간 고객님이 만족하시고 저 역시 부끄럽지 않게끔 일을 해서 나름 캐디라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E-3-3).

골퍼들이 즐겁게 라운딩을 마치고 가실 때 뿌듯하다(F-3-3)

직원을 유인하고 보유하는 것은 돈이지만 직원의 동기 유발은 자부심이 담당한다. 돈은 능력 있는 직원을 끌어당길 수 있고 일시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며 경쟁사가 더 많은 돈을 주지 않은 한 직원들을 잡아두는 힘이 있다. 하지만 기업의 장기간의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금전적인 보상보다는 더욱 감성적인 요인들이다. 성취감 동료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다(김영철 역,2003).

한때 젊어서나 하는 장래성 없는 직업이라는 인식 속에 그나마 직업인으로써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는 캐디들은 볼 때 장기적으로는 캐디문화 발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4. 전문성

캐디의 전문 직업 정착 등을 내세운 사단법인 한국캐디골프협회가 2005년 1월 26일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캐디골프협회는 앞으로 전문가들을 교육을 통해 양성하고 현재 3만여 명에 이르는 골프장 캐디들의 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캐디가 전문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일간스포츠, 2005)으로 창립하였다. 그리고 2009학년도부터 전남00대학에서는 골프/캐디학과를 설치하여 캐디들도 보다 전문화된 소양을 갖춰 안정된 직업인으로 인정받도록 하고 있다.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능숙하게 일하려면, 1년은 걸리거든요. 그저 클럽 갖다

dCollection @ chosun

주고 카트운전만 하는 게 아니에요. 4명 볼 봐야지, 스코어 봐야지, 그린 올라가면 볼 닦아주고 라인 봐줘야지. 단순노동 같아도 집중해서 신경 써 야해요. 시야도 넓어야 하고, 돈 많이 받는데 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음 골프장 가서 문제 없이 일하려면 보통 짧게는 2-3개월 교육받아요. 그래도 어설픕니다. 본인이 노력도 많이 해야 하고, 시간도 많이 필요해요.(A-3-5)

저는 캐디를 전문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일용직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루에 10만원 20만원 벌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은 거 같다. 첫째 자기관리만 잘한다면 돈은 단기간에 많이 벌 수 있는 전문 직업이다. 둘째로는 골프라는 스포츠를 가깝게 즐길 수 있어서 요즘 골프장에 캐디 자율적으로 라운딩을 하게 끔 하기 때문에 쉽게 골프를 할 수 가 있다.(C-3-5)

전문직으로 생각한다. 단순노동과는 차이가 크다 (단순히 클럽 전달 카트운전이 다가 아니다)(D-3-5)

물론 캐디는 전문직이다. 자기만의 스타일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리며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전문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L-3-5)

전문적인 직업이라 생각함 앞으로 더욱더 전문적인 직업으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F-3-5)

캐디는 전문성을 가져야 할 수 있는 직업이다. 조금이라도 전문성을 가지지 않는다면 할 수 없다(I-3-5)

이상과 같이 남자캐디들의 직업이 전문직임을 자각하고 있듯이 여자 캐디를 중심으로 캐디들의 자기직업에 대한 인식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 분석한 선행연구(김한룡, 2006)에서도 캐디라는 직업은 '전문직이다'라고 보고하고 있다.

일간스포츠(2007. 7.8 일자)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전문프로캐디 1호(女:지

dCollection @ chosun

은희)가 탄생하였다. KLPGA 안선주 프로의 전문캐디로 올해 3월 안선주와 8개월간 정식으로 캐디 계약을 체결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처럼 월급과 함께 인센티브제도도 적용했다" 고 한다.

> 안선주는 "지난해 전문 캐디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다. 대회 때마다 캐디가 바뀌는 것보다는 일관성이 있어 좋다. 또한 은희(지)언니의 경우 세미프로 테스트까지 보려고 했을 정도로 골프 실력도 겸비하고 있어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물론 한시적인 시도이긴 하였으나 우리나라 캐디 전문화에 시금석이 될 만한 일이다. 이러한 시도가 골프 선진 외국의 경우처럼 남자 전문캐디 탄생을 기대해 볼 만한 신호탄으로 볼 수 도 있는 것이다. 이는 프로캐디의 경우이지만 프로캐디의 활성화가 자연스럽게 하우스캐디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는 역할도 할 것이다.

미국, 일본, 유럽에 이어 한국 투어시장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투어시장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처럼 한국의 투어 중계방송을 살펴보면 보호자나 동료 등 지인들로 구성된 남자캐디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처럼 한국 투어에서도 남자캐디들이 프로선수들의 경기를 도와 시합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도 전문 남자캐디가 등장해야할 시기로 볼 수 있다. 골프선수들은 심리적 신체적 기술적 생활적인 측면에서도 캐디들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연구(신 정택 외, 2007)가 있다. 지인(知人)들이 아닌 전문화되어 있는 남자 캐디들이 경기에 참여하여 선수들이 그들의 도움을 받아 한층 높아진 경기력을 뽐낼 수 있는 날을 기대한다.

5. 장래성

한때 골프 황제 타이거우즈의 캐디였고, 현재 짐 퓨릭(Jim Furyk)의 캐디를 맡고 있는 '흰 수염의 할아버지 캐디' Mike Cowan처럼 나이가 들어서도 활동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우리나라 남자캐디들은 직장으로서 장래성이 없어 오랫동안 직업으로 일 할 수 없는 불안정한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다.

Collection @ chosun

별로에요. 전혀 추천해주고 싶지 않아요. 일단 남자는 30세가 넘으면 하기 힘들고 돈을 진짜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그 시간에 차라리 월급 작아도 다른 일 배워서 경력 쌓으라고 하고 싶어요. 캐디는 어떻게 보면 일용직인데 평생 먹고 살순 없으니까, 당장엔 돈 들어오고 좋아도 뒤돌아보면 후회할게 뻔해요. 다른 친구들은 직장에서 자리 잡고 생활하는데 자기는 뭐했나 싶을 겁니다. 지금 저도 그렇고요. 차라리 기술을 배우던지 사회 첫발 잘 딛으라고 하고 싶네요. TV보면 프로선수들 캐디들 남자가 많잖아요? 돈도 많이 벌수 있을 거고. 폼도 나고……. 물론 꿈같은 일이지요.(2-4-A)

장래성은 없다. 캐디를 하면서 자기 개발을 병행 한다면 모를까, 캐디만으론 장래성은 없다. 특히 남자의 경우엔 30대 초반 까지 밖에 할 수 없다.(2-4-B)

직업으로 추천하기는 어렵고 단기적으로는 할 만한 일인 것 같다.(2-4-D)

장래성은……. 솔직히 주변 시선을 봐서라도 그렇게 오래할 만 것 같진 못한 것 같다. 젊었을 때 잠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큰돈이 필요하다면 이만한 일이야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사실상 캐디란 직업만으론 비전을 찾기 힘들 것 같습니다.(2-4-J)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자신의 직업이 비안정적이라고 인식하는 경우는 첫째로 직장의 장래성과 안정성을 들고 있다(김소연, 2002). 남자캐디들에게는 30대 초반을 넘기면 캐디일 을 할 수 없다는 직장 분위기로 인해 장래성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가중된다. 현실적으로 직장에서 일평생을 지낼 수 있다는 것이 사회구조상 어려운 상황에서 캐디라는 직업에 들어선 사람들은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독립'을 하고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경우이다. 다시 말해 남자 캐디들은 자신들의 직업에 대해 장래성이 불안정한 직업으로 판단하고 '독립'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캐디라는 직업이 일용직이 아닌 정규직이면서 복리후생이 있으면 조직몰입, 직무만족, 교육훈련, 근무조건 등의 직무에 대한 만족이 높을 것(장진, 2007)이고 이에 따라 장래성 있는 직업으로 안정된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Collection @ chosun

6. 사회적 인식

현대사회를 살아감에 있어 직업은 생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핵심적인 필수요소이며 우리 인간에게 행복한 삶을 위한 재화를 제공하는 절대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삶의 원천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직업인들이 자기가 맡은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사회발전의 밑거름이 된다.

남자캐디들이 자기 직업을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인식하고, 사회에서 남자 캐디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는 연구된 바가 없다. 그래서 먼저 남자 캐디들이 자기 직업에 대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 남자는 오래 못해요. 평생직업도 될 수 없고, 어릴 때 잠깐 와서 목돈 만드는 곳이라고 해야 하나? 근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웬만큼 독해선 돈 모으기 힘듭니다. 주변사람들도 보면 목돈 쥐고 있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그때그때 돈이 들어오니까 씀씀이가 커지고 내일 또 벌 면되지 뭐.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오래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체면은 둘째 치고 앞으로 먹고살 궁리 해야지요. 아무튼 남자는 오래할일 아니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처음에 자기 직업을 골라서 힘들더라도 경력을 쌓고 꾸준히 배우는 게 낫다고 봐요. 어차피 캐디 한다고 몇 년에 몇 억 버는 거 아니니까요.(2-3-1-A)

> 저는 본래 호텔경영이 전공이어서 그런지 캐디일 을 시작하면서 캐디 일 또한 서비스직의 하나라 생각하고 뛰어들어 남자캐디에 관한 선입견 같은 게 그다지 없습니다. 솔직히 이 일을 힘이 닿는 한 30대 초반 까진 하고 싶은데 사실상 주위에 시선 때문에 고민이 많은 편입니다. 내가 캐디일 을 하는 건 다 알고 있지만 나이를 먹고도 이 일을 하고 있을 순 없으니……. 대학교를 다닐 땐 멋진 호텔리어와 매니저가 되고 차근차근 목표와 계획이 있었는데……. 이제 이 일도 3-4년이 접어드니 처음에 시작할 때의 일에 대한 자부심과 포부는 다 어디가고 어느덧 점점 맹목적으로 돈만 쫓아가는 것 같아 내 자신에게 실망과 아쉬운 맘이 약간은 듭니다. 그래도 현실을 직시하자니 어쩔 수 없다는 핑계 아닌 핑계를 댈 수밖에……. (2-3-1-J)

Collection @ chosun

여자캐디에 비해서 생명력이 짧다. 젊은 친구들이 직업이 목적이 아니고 골프에 관심을 가져서 일을 했으면 한다. (2-4-G)

남자에게 있어서 캐디라는 직업이 아직은 뿌리내리지 못해서겠지만 평생 직업으로서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 30대 초반만 지나면 남자캐디들은 일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캐디라는 직업은 여성의 전유물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캐디라는 직업을 갖고서도 많은 직업적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갖게 된다. 그리고 정체성 형성과정은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유태호, 2000). 이것은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남자캐디의 정체성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사회적 인식에 의해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남자 캐디들은 자신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을 다음과 같이 느끼고 있다.

부정적인 시선들이 많아요. 노가다 정도로 생각합니다. 제 친구는 무슨 제비처럼 생각도해요. 농담이지만 사모님 한번 잘 꼬셔 봐 하는 친구도 있고……. 아무래도 예전에 손님과 2차가고 만나고 한다는 말이 많아서 그런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구요. 전혀 안 그런데……. 전 웬만큼 친한 사이가 아니면 캐디라고 말을 안 해요. 왠지 창피해서요. 골프장 다녀본 사람이면, 프로 하려고 캐디 하는구나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냥 그렇다고 할 때가 많아요. 아니라고 하면, 마땅히 할 말이 없거든요.(2-3-2-A)

할 것 없어서 캐디나 하고 있는 한심한 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근데 사실이다. 흐지부지 비전도 없는 회사에서 백만 원 내외의 월급을 받으면서 시간이나 버리느니 안정적이진 않지만 자기관리 철저히 하면서 단기간에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직종이라서 선택했기 때문에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다.(2-3-2-B)

밖에서는 남자가 얼마나 할 게 없으면 이런걸 하나 하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Collection @ chosun

골프하시는 분들은 '남자캐디=골프지망생' 이렇게 생각하시지만요(2-3-2-E)

일반적으로 남성 주체성(정체성,Identity)은 활동성, 강인성, 공격성, 근육성으로 상징되고, 여성주체성(정체성,Identity)은 소극성, 연약함, 부드러움, 우아함으로 표현(박지영, 2007)되어 진다. 이러한 사회적 관념 하에 남자 캐디들은 여성 전유물로 인식 되어 있는 캐디라는 직업 안에서 사회적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은 짧은 직업 수명과 부정적인 남자캐디에 대한 사회적 인식으로 본인들 역시 남에게 자기의 직업이 캐디임을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고 프로지망생이라고 둘러 댈 정도로 직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폐쇄성을 가지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7. 직업 만족

현대사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자기의 생활을 지켜 나가기 위하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자기의 직업을 통해서 생활을 지속해가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업에 만족해야만 한다. 하지만 직장생활을 하면서 어떤 이는 만족상태로 일(Work)을 할 것이며, 어떤 이는 불만족스러운 상태에서 일(Labor)을 한다.

직업인들이 자기 직업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며 일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될까하는 것은 많은 연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캐디라는 직업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들도 여자캐디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백병주·이석동, 2000; 곽은창·곽노철, 2003; 장진, 2007; 정우진·최성범, 2005 ; 이계윤 외,2005). 하지만 여자캐디를 대상으로 한 캐디들의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도 보고하고 있듯이 남자캐디에 있어서도 직무만족이 이직의향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장래 비전이 없어서 항상 그만 둘 시기를 고려하게 된다.(D-4-1)

아무래도 손님을 상대하는 일이라서 매너 없는 골퍼들로 부터(부자, 깡패)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캐디라고 해서 낮게 보고 말도 함부로 하는 분들도 가끔 계시고 진행에 대한스트레스도 많아요. (E-4-1)

Collection @ chosun

항상 근무하는 시간이 불규칙하다 보니 개인적인 스케줄 잡기가 까다롭고 또한 미래에 대한 복지가 너무 불투명하다. (F-4-1)

캐디는 매력 적이기는 하나 연령에 제한이 있다. 골퍼들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 (G-4-1)

캐디만으론 장래성은 없다. 특히 남자의 경우엔 30대 초반 까지 밖에 할 수 없다 (B-2-4)

나이가 22세-32세까지 10년 정도로 생각하면 어려운 경제시기에 적극 추천하고 싶으나 직업 수명이 짧다. (G-2-4)

공공스포츠시설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은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직무만족이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여러 선행연구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김경식, 2006). 이는 골프장 구성원인 남자캐디들이 직무에 만족한다면 이직을 생각하지 않고 캐디 직에 충분히 몰입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직은 기대와 충족 이론적 관점에서 조직에 대한 자신의 공헌 또는 기대와 보상간의 형평 또는 균형이 존재한다고 느끼면 몰입을 하게 되고 이직의 가능성이 줄어든다. 조직에서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이직은 조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조직이나 직무에 대하여 재평가 하도록 함으로써 호의적인 태도를 감소시키고 이직을 유발할 수 있다(정우진·최성범, 2005)고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캐디들이 전문직업인임을 인정받고자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하고, 또 조직 안에서 최선을 다해 직무에 충실한 다 할 지라도 불투명한 장래성으로 인해 이직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Collection @ chosun

D. 일탈

스포츠 하위문화중 일탈적 하위문화로써 남자캐디가 가지고 있는 일탈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문화란 특정한 사회집단이 삶의 특정한 양식을 발전시키고 그 들의 사회적, 물리적인 삶과 경험에 특정한 표현의 형태를 제공하는 것이다. 개인에 따르면 문화적인 다양성과 더불어 특정집단에 독특하게 나타나는 문화적 다양성을 우리는 하위문화라 부른다. 하위문화의 발생에는 많은 이유가 있다. 다른 직업을 갖는 사람들은 직업에 있어서 하위 그룹을 형성하며 각 스포츠 집단들은 때때로 다른 가치 체계를 갖고 있다(한이석, 2004). 각각의 하위그룹으로 형성되어진 스포츠 하위문화를 직업적 하위문화(Occupational Sub-culture), 동호인하위문화(Avocational Sub-culture), 그리고 일탈적 하위문화(Deviant Sub-culture)로 나눠 볼 수 있다.(Loy, McPerson과 Kenyon, 1978)

스포츠 하위문화로써 골프가 그 안에서 남자캐디문화를 싹틔우며 일탈적 하위문화도 갖게 되었다.

> 일탈행위라 하면, 골프장 규칙이겠지요. 진행을 늦게 한다거나, 잔디를 상하게 하는 스파이크를 신는다거나, 하지만 저는 웬만하면 모른척해요. 괜히 그런 걸로 트집 잡거나 하면, 저만 힘드니까, 크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크게 내기를 하는 경우 OB가 났는데 모른 척 하라고 할 때나 룰을 어길 때, 저는 모른척하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캐디들 경우, 주로 여자들이지만, 골프장에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 손님과 사적으로 연락하고 지내거나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많지 않지만, 아직도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캐디에 대한 인식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A-4-2)

>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을 모른척하고 지나치기 등등…….
> 남자캐디와 여자캐디가 만나서 누구누구 잠잤다더라. 사귄다더라. 이정도. (C-4-2)

> 캐디=술 먹고 무단결근, 골퍼=알까기?,타수 속이기 (D-4-2)

Collection @ chosun

고객을 사적으로 만난다하거나 하는 일은 없으나 소문에는 만나고 하는 분들이 있다 합니다. 일명 '알까기'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가끔 캐디와 상의해서 하는 분도 계심).고객님이나 회원님들께서 작업 치시는 분들 많습니다. (번호 등등 연락하자면서) (E-4-2)

물론 있다. 많은 아마추어 골퍼들이 타수에 많이 연연한다. 알면서도 그렇고 모르면서도 그렇고 실수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타수가 적어지기를 원하신다. 어찌 캐디가 일일이 따지고 들겠는가? 나 또한 알면서도 눈감아 드린다. 라운딩 동안의 평안을 위해서.(L-4-2)

O.B가 났을 때 안쪽으로 넣어주기, 거리가 안나는분 볼을 멀리 가져다 놓기, 스코어 조작해주기, 시합이나 자격증 취득 테스트에서 스코어조작을 위해 캐디에게 돈을 주고 부탁하는 경우, 골퍼들 알까기 등등이 많이 있는데 내가 일을 편하게 하기위해 규칙을 위반해도 넘어가는 행위 등은 생각하면 참 안타깝다.(O-4-2)

골프문화 안에서 형성되어진 남자캐디의 조직이나 집단, 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은 그 사회가 바라는 규범 속에서 활동하도록 요구되어 지고 있다. 캐디라는 구성원들은 그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이나 가치의 틀에 맞추어 행동하도록 기대되고 있으나 골퍼들의 규칙위반에 대한 묵인, 음주 후 무단결근, OB난공 페어웨이 안으로 넣어놓기, 짧은 비거리 공 멀리 보내 놓기, 스코어 조작해주기, 벌칙으로 당번을 서는 소위 '벌당' 이라는 언어적 일탈 등의 일탈행위를 갖고 있다.

또한 골프장에서 연결된 이성문제 등이 있다. 물론 골프장내에서 남녀 캐디간의 이성교제는 청춘남녀로서 긍정적인 일탈행위로도 볼 수 있겠으나 남자 캐디들이 겪고 있는 이성간 일탈행위는 그 주체가 누구건 간에 재고되어야 하는 부정적 일탈 행위로 간주된다.

다음은 서울신문 최봉규기자가 <주말탐방>으로 기고한 수도권지역의 남자캐디가 많이 근무하고 있는 000골프장 5명의 남자캐디가 꼽은 여성골퍼들의 꼴불견 '톱 5' 이다.(서울신문, 2006. 8. 12일자)

dCollection @ chosun

(1) 담배 없인 못살아

대부분의 국내골프장은 절대 금연. 고객의 건강은 물론 애써 관리한 잔디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물론 '카트(전동차) 내에서만'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골프장 끽연이 죄는 아니지만 도가 지나치면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법. 한 여성 골퍼는 홀마다 1개비 이상씩을 연기로 날린다. 심지어는 티박스에서까지 담배를 문 채 올라가 티샷 하는 경우도 있다. "헤드업 방지하려면 담배 끝만 쳐다보는 게 최고라니까."

(2) 1야드에 목숨 건다

캐디의 임무는 고객의 스코어를 줄이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러나 그린까지 1야드, 홀컵 1㎝까지 따지는 데는 두 손 다 들 지경이다. 자칭 '싱글핸디캐퍼'임을 과시한 어떤 여성 골퍼는 30야드의 어프로치샷을 남기고 핀까지 서너 차례나 왕복하며 거리를 재기도 한다. 뒤 팀은 페어웨이에서 골프채에 턱을 괸 채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다음 샷을 기다리고 있다. 그녀의 샷은 처참하게 생크가 나 OB말뚝 밖으로 튀어나갔다.

(3) 그린 삼매경이 죄냐

그린 위에서 쪼그려 앉은 채 한참 동안 퍼트라인을 '쪼는' 걸 탓하는 게 아니다. 다리를 모으기만 한다면. 여성 골퍼들의 짧은 치마 속에는 물론 속바지가 있다. 그렇다고 무릎을 모으지 않고 '개방'할 경우엔 모두가 민망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남자 캐디가 반대편에서 그린을 읽어주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그의 입에서 제대로 된 그린 정보가 나오기란 '절대 불가'다. 무릎을 모으시라. 스코어가 올라간다.

(4) 여자라고 왜 못해

궁금하면서도 우려했던 바다. 성희롱과 스킨십이다. 극히 일부지만 지나친 '농'을 건네는 40대 아줌마들. 반말은 기본이다. 그린에서 공을 닦아 놓아주는 캐디에게 "이 퍼트라인이 맞느냐."며 뒤에서 몸을 찰싹 붙이는 경우는 그래도 참을 만하다.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조심스레 카트(전동차)를 운전하는데 "참 다리가 튼실하다."며 허벅지를 손으로 문지를 땐 카트를 계곡에다 처박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

dCollection @ chosun

(5) 소풍은 즐거워

에티켓에 충실한 골퍼라면 라운드 도중 한번쯤은 그늘집에 들러주는 건 기본. 그러나 일부 '걸스카우트 아줌마'들에겐 예외다. 떡이며 김밥, 냉커피까지 완벽하게 준비해 '소풍 잔치'를 벌이는 경우도 있다. 한술 더 떠 그늘집 안으로 음식물을 가져 들어가는 데는 대책이 안 선다. 이런 골퍼들일수록 캐디에게 떡 한쪽 건네는 법이 없다.

또 다른 기사는 인터넷 일간스포츠에 기고된 남자캐디들이 또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사이다.(일간스포츠, 2007. 10. 24일자)

성희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예전에는 여자 캐디들을 희롱하는 골퍼들을 가끔 만날 수 있었다. 하지만 여자 캐디들만 성희롱을 당하는 것은 아니다. 여성 인권 신장과 함께 남자 캐디들도 성희롱을 당하기도 한다. 오늘은 남자 캐디가 당한 성희롱을 소개해 볼까 한다.

대부분은 남성 손님들이 여성 캐디를 터치하거나 희롱 한다는 이야기를 몇 번 들어본 사례는 있었다. 하지만 난 오늘 여자에게 당했다. 표를 받아보니 이름은 60년대 초 절정으로 유행했던 이름들이었다. 그런데 60년대 분들치고는 나름대로 광란의 패션으로 치장했다.

고객1: 어머~ 오빠가 우리 캐디야?

나: 아~~네~~~오늘 경기 진행을 도와드릴 김XX 입니다.

고객 2: 어머~~어머~이~우람한 근육. 우후~~너무 좋다! 오늘 볼 잘 맡기는 글렀네. 호호호~~

-중략-

고객 4: 옵빠~~ 라인 좀 잘 놓아주세~~용

나: 네~~(라인 하면 또 라인김이지. 놓아준 대로만 치시면 그냥 들어갑니다. ㅋㅋㅋ)

살짝 긴 퍼팅 이였지만 역시 놔준 대로 치면서 쏘옥~ 홀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러자 입에서 나오시는 말 한마디.

dCollection @ chosun

-중략-

고객 4: 어머~어머~들어갔어! 어우~이 옵빠! 구멍에 넣는 거는 눈감고도 하겠네~~

나: 헉!(이 멘트는 쩝~~별 야기를 다하시네)

이때 까지는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다. 하지만 갈수록 무시무시한 아주머니들의 퍼포먼스가 기다리고 있었다.

신중이 라인을 보고 있을 때 였다. 뒤에서 무언가 다가오는 느낌을 받았다.

한 고객님이 슬며시 내 옆에 다가와서는 손으로 내 귀를 가리고 작은 귓속말로 아주 느끼하게 속삭였다.

고객 3: 오~~옵~빠~~여기 어디가 더 노~옵~~파?

나: 화들짝 놀라며(어우~~귀에다 입김을 불어 넣다니 왜 이러세요. 이건 좀 그런데)

어느 한분이 그러는 것도 아니고 네분다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거다.

고객 2: 김프로~요즘은 몇 타나 쳐?

나: 아~~저요? 배운지 얼마 않되서 잘 치지는 못합니다. 한 84타 정도?

고객 2: 에이~ 정말 그거밖에 못 쳐? 허리 잘 돌아가게 보이는데~~. 혹시 다른 데를 더 잘돌리는거 아니야? 호호호~~

나: 크헉(어~~지대루 날 다루는 거야. 아~~당했다)아~~네~~

이제는 한술 더 떠 앞 팀의 중년 남성 네 분과 부킹이 안 되냐고 물어보셨다.

가끔 남자 손님들이 농담으로 어디 꽉 찬 아줌마 한 팀 부킹 안 되냐고 말하는 것은 들었어도 여성분들한테 듣기는 처음이다.

오늘은 완전히 상황 역전이다.

-중략-

아주머니 네 분과 나갔다가 기력 다 흡수당하고 맘에 상처까지 받구 정말 힘들었다. 다들 웃자고 농담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제 기분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된다.

캐디들도 사람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정말 말조심 해주세요!! 골프 얼마나 재미난 운동입니까! 골프를 사랑하는 만큼 캐디들도 사랑해주세요~~~

Collection @ chosun

물론 소수의 경우이긴 하겠지만 여성골퍼들에 관한 이상의 두 가지 기사를 가능한 한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인용하였다.
남자캐디가 남긴 마지막 구절이 귓가에 맴도는 듯하다.

“골프 얼마나 재미난 운동입니까! 골프를 사랑하는 만큼 캐디들도 사랑해주세요!”

이렇게 사회적 요구에 부흥하지 못한 행동을 할 경우 이를 일탈이라고 한다.(강복창, 2003) 이러한 성희롱 등의 부정적 일탈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캐디들을 위해서라도 이 사회는 공식적인 교육과 홍보, 골프장 측의 비공식적 통제와 제재를 가함으로써 골프사회의 결속과 안정,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그렇게하므로써 보다 더 건전하고 건강한 캐디문화와 더 나아가서 성숙된 우리나라의 골프문화가 이뤄질 것이다!

Collection @ chosun

Ⅴ.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현재 한국 스포츠문화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는 남자캐디라는 직업이 가지고 있는 직업적 하위문화의 구성요소가 캐디문화에 적응되어 가면서 형성되는 남자캐디들의 정체성을 탐색하고, 그들의 하위문화를 이해해 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도출하기 위하여 채택한 연구 방법은 J.W.Creswell이 제시한 다섯 가지 연구전통중 문화적 또는 사회적 집단이나 체계에 대한 기술과 해석에 적합한 문화기술지이다.

자료수집은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전남, 전북, 제주도 지역의 골프장을 수시로 찾아 라운딩을 하면서 캐디들의 활동을 현장에서 직접 관찰하였으며, 개방형 질문지로 기본 자료를 수집하여 면담과 전자메일을 통한 2차 자료수집을 하였다.

자료 분석은 개방형 질문지에 의해 수집된 자료와 면담에 의해 녹음된 자료, 그리고 관찰에 의해 수집된 자료들을 컴퓨터로 깨끗하고 자세하게 전사(transcription)하였다. 그 다음 텍스트 자료의 핵심적인 주제들을 목록(템플릿,template)으로 제작해 접근하는 템플릿분석법을 수행하여 남자캐디들이 골프현장에서 만들어 내고 있는 하위 문화적 영역들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A. 결 론

이상과 같은 연구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들만의 정체성을 형성해가고 있는 한국 남자캐디들의 문화를 분석하여 탐색해 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남자캐디들은 다음과 같은 개인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프로선수가 되기 위해 또는 타 직종 전업이나 골프 관련사업 자본 확보를 위해 경제적 목적으로 캐디를 시작하였다. 프로선수가 되기 위하여 훈련경비도 조달하고, 연습장소도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캐디를 선택한 사람, 짧은 시간에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직업이라고 해서

Collection @ chosun

경제적 수입을 목적으로 캐디에 입문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둘째, 남자캐디들은 인격적 무시에 가장 힘들어 하며, 여자캐디와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남,녀골퍼들과는 복잡 다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격무시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음주문화가 넓게 퍼져 있으며, 여가 시간에는 골프를 비롯한 운동과 독서를 즐기는 편이다. 남자캐디와 여자캐디들 간에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골프직업 현장은 남자 캐디들의 안정된 직장 생활로 잘 적응하는데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남자골퍼들은 거부감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 대개의 여성골퍼들은 환영한다.

셋째, 남자캐디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의식은 다음과 같다.

1. 어떤 서비스 업종보다도 투철한 서비스정신으로 일을 한다.
2. 골퍼들과의 갈등, 직장의 불안정성 등이 책임감 저하를 가져오고, 이로 인해 업무의 성실도를 떨어뜨린다.
3.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직업이라는 자부심이 높게 나타났다.

   많은 남자캐디들을 고소득 직종이라고 캐디직업에 끌어들일 수 는 있어도 골프문화에 있어서 바람직한 캐디문화의 조성은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다.
4. 전문 직업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5. 장래성 있는 직업으로는 인식하고 있지 않다.

   낮은 사회적 인식, 남자캐디들 사이에도 젊은 나이에만 할 수 있다는 보편화된 분위기로 인하여 평생 직업으로는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6. 남자캐디들은 직업수명이 짧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들에 대한 부정적이며 폐쇄적인 직업인식을 가지고 있다. '할일이 없어 캐디나 하고 있는 한심한 사람' 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직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7. 골퍼들의 캐디에 대한 인격적인 무시와 골프장의 경기 진행에 대한 스트레스, 불규칙한 근무시간으로 사생활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남자 캐디들은 직업만족도가 낮아 상시(常時) 이직성향을 띠고 있다.

Collection @ chosun

넷째, 골퍼들의 규칙위반에 대한 묵인, 음주 후 무단결근, OB난공 페어웨이 안으로 넣어 놓기, 짧은 비거리 공 멀리 보내 놓기, 스코어 조작해주기 그리고 벌칙으로 당번을 선다는 말로 '벌당' 같은 언어적 일탈문화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비록 간접적인 언어적 희롱일지라도 성희롱, 일부 골퍼들로부터 폭언, 심할 경우 폭력까지도 참아 내야 하는 일탈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상과 같이 남자 캐디들은 프로골퍼가 되거나 고수익을 쫓아 캐디직업에 입직하여 인격적 무시를 겪으면서 전문직업인으로써 투철한 서비스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 직업으로 고착화되어 있는 캐디 문화로 인한 남자캐디에 대한 부정적 시각, 남자도 캐디를 하냐고 되물을 정도의 낮은 사회적 인식으로 인한 책임감 결여, 낮은 사회적 인식 등으로 인한 폐쇄적 직업관을 가지고 언제든지 직업을 떠날 이직 의향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규칙위반 묵인, 스코어 조작해주기, 간접적 성희롱 등 일탈문화도 가지고 있다.

이런 문화 속에 있는 남자캐디들을 위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골퍼로의 입문 단계에서부터 기능교육에 앞선 예절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에 남자캐디들은 캐디골프협회, 대학 등 전문 교육기관을 이용한 전문교육과 소양교육을 통해 건전하고 발전적이며 장래가 밝게 비춰는 비젼있는 직업으로의 '남자캐디문화'가 꽃피우길 기대한다.

B. 제언

본 연구는 스포츠문화중 우리나라의 골프문화로 새롭게 형성되어 있는 남자 캐디문화의 전반적인 문화를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고 남자캐디들의 개인적 특성, 직업캐디로의 적응, 직업의식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일탈문화 등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형성되어 있는 남자캐디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탐색과 이해를 도모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중요한 가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형성되어 있는 남자캐디 문화를 전반적으로 탐색해보는 연구를 하였기에 보다 더 심층적인 연구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세부적인 남자캐디 문화연구가 꾸준히 이뤄져야 하겠기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Collection @ chosun

첫째 각 지방마다 지방색이 다르다는 말이 있듯이 각 지역의 특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오랜 전통을 가진 각 지방의 대표적 골프장들을 선정하여 전국적인 남자캐디문화를 심층 탐색하여 이해해 볼 것을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는 내부자적 시각으로 연구되었으나 차후에는 외부자적 시각, 즉, 남녀골퍼들이 바라보는 남자캐디, 여자캐디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남자캐디, 골프장 측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남자캐디 등 외부자적 관점과 함께 연구하는 것을 제안한다.

셋째 자기가 캐디임을 밝히기 꺼려하는 폐쇄적 직업관을 가지고 있으며 업무 구조상 사생활이 불규칙한 남자캐디들을 1:1 심층인터뷰, 현장에서 밀착 관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으므로 앞으로 연구방법 설계에 있어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전화 인터뷰, 보다 더 적극적인 전자메일을 통한 개방형 질문지법등을 긍정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이제는 골프가 어느 정도 대중성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부정적인 사회 인식이 깔려있는 한국 골프문화 안에서 보다 더 폭 넓은 대중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심층적인 골프 일탈문화를 연구하여 부정적 일탈문화들을 부각시켜주므로써 사회적 교육, 홍보효과를 노려 순기능적 스포츠문화가 되도록 연구되기를 제안한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이 수행되므로 써 바람직한 남자캐디문화의 정착은 물론이고 한국 골프문화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한다.

Collection @ chosun

참고문헌

강복창(2003). 스포츠 사회학 개론, 서울 : 태근 문화사. 75

강상조(2006). 체육연구방법, 서울 : 도서출판 21세기교육사, 39

곽노철(2001). 골프장의 캐디문화 구성요소, 경희대학교 산업정보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3

곽은창·곽노철(2003). 골프장 도우미의 사회 문화적 요인에 대한 인식분석, 한국사회체육학회지, 20, 11-27

곽은창·황승연(2000). 골프몰입 정도에 따른 한국골프 문화의 구성요소 비교분석.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3(2)

권순용(2006). 박세리, 골프, 그리고 민족주의:IMF 체제하에서의 부자연스러운 접합.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9(1), 101~116

김경식(2006). 공공스포츠시설의 조직문화와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45(6), 145-155

김교창(1999). 골프법률상식 모든 것. 서울 : 청림출판사.

김동균(1987).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실증적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10

김범식 외9(2003). 현대사회와 스포츠. 서울 : 도서출판 홍경, P165

김석겸(2002). 골프장 캐디서비스가 고객만족도 및 구매 후 행동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스포츠과학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숙영·원영신(2000). 청소년댄스의 하위 문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39(2), 105-115

김소연(2002). 직업의 안정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명철(역)(2003). 왜 자부심이 돈보다 중요한가? 서울: 매일경제신문

김영문(2004). 특수 형태 근로자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법사실적 고찰-골프장 경기보조원을 중심으로. 안암법학, 18.

김영천(1997). 네학교 이야기. 서울: 문음사.

Collection @ chosun

김영천(2006). 질적연구방법론Ⅰ, 서울 : 문음사 93, 483-486
김우성(2000). 현대사회와 스포츠, 서울 : 무지개사, 184,186
김용규(2005). 골프의 미학, 한국스포츠리서치,
김의철·박영신(2004). 청소년과 성인의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 가정, 학교, 직장, 여가생활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건강. 9(4). 973-1002
김응식·윤경(2007). Teaching Pro선발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스포츠리서치, 18(6)
김응식·윤경(2008). 프로골퍼들의 동계훈련에 관한 문화 기술적 연구, 조선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 스포츠과학연구, 19, 231-246
김정기(1986). 전문직 여성차별에 관한 연구-의사직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회학과 사회학회 사회학연구, 18호
김지경(2002). 차별경험,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믿음과 개인자부심, 집단자부심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7(1), 1-13
김진덕·이명종(2008). 지방행정 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지역정책연구, 19(2), 47-81
김재호(2001). 골프경기보조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노동사회, 60, 66-70.
김한룡(2006). 골프장 캐디의 직업 환경실태 분석,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희봉(2005). 웰빙의 의미와 도덕교육. 도덕교육연구. 제16권 2호, 한국도덕교육학회.
김홍백(2003). 골프는 왜 하는가?(참여동기 분석), 한국스포츠리서치, 14(4), 34
김찬룡(2004). Geoge H. Mead의 상징적 상호작용론 관점에서 본 골프 동호인 하위문화적 특성,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
김찬룡(2006). 골프동호인 하위문화 특성 측정 도구개발을 위한 탐색적. 확인적 요인분석, 한국사회체육학회지, 28, 561
김찬룡(2006). 미국 골프문화 벤치마킹을 통한 한국의 여가로서의 골프 활성화 방안 모색, 한국스포츠리서치, 17(5), 378
김찬룡·이근모(2004). 골프동호인 하위문화의 사교성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43(3), 103-115
김찬룡·서병세(2005). 골프동호인 하위문화의 중독성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한국스포츠리서치, 16(4), 85-94

Collection @ chosun

남행웅(2006). 이종격투기의 하위문화적 특성과 기능, 한국스포츠리서치,17(6),801-810
박만건(2003). 스포츠문화체계와 사회현상-쇼트트랙스피드스케이팅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0.18
박현미(2005). 전문캐디와 골프선수의 심리적 변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홍규, 정홍익, 임현진 편저(1992). 스포츠 사회학. 서울 : 나남
박홍규(2001). 골프장 캐디는 근로자인가? 노동법률, 통권127호.
박준성(2002). 골프장 캐디 문제에 대한 대안 모색. 조정과 심판, 제9호
박지영(2007). 여성중심 스포츠에서 남성선수의 성 정체성.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67
방민준(2002). 달마가 골프채를 잡은 까닭은? 서울 : 서해문집
백병주·이석동(2000). 캐디들의 의식구조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체육과학논총, 10(1), 153-164
백종수(2004). 중학교 체육교사의 수업관리방법 분석, 한국스포츠리서치, 16(3),766-776
박준성(2002). 골프장 캐디 문제에 대한 대안 모색, 조정과 심판, 9, 3-24
서윤석(2001). 지형변경 최소화를 위한 골프코스디자인 개선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7
손석정(2000). 재미없는 골프이야기. 서울: 도서출판 진리탐구.11-12
손석정(2001). 캐디의 법적신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 16, 111-121
신경림외(2003). 질적 연구 용어 사전. 서울 : 현문사, 378
신익수(2007). 매일경제신문(http://news.mk.co.kr), 5월29일, 11월5일자 기사내용
신정택·박현미·육동원(2007). 골프선수와 전문캐디의 다면적 관계, 체육과학연구, 18(4), 131-145
안민석·정홍익·임현진(편)(2002). 새로운 스포츠 사회학. 서울 : 백산서당
이계윤·이영희·이종목·김인숙(2005). 골프경기보조원들의 직무스트레스, 매개변인, 직무만족간의 인과분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6(3)
임수원(1999). 길거리농구의 하위문화적 특성과 기능. 한국스포츠 사회학회지 12. 41-56
임수원(1999). 스포츠와 하위문화, 한국스포츠사회학회 정기세미나(1) 자료집.

Collection @ chosun

임수원(2000). 골프 동호인 하위문화의 특성과 기능. 한국스포츠 사회학회지 13. 55-67

유시건.(1997) 골프장 이용자의 만족도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태호(2000). 체육교사의 직업정체성 형성에 관한 생애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윤경·김응식(2007). 주니어골프선수들의 하위문화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리서치, 18(3).

윤형숙(1996). 그들과 우리 사이에서 : 인류학 연구하기, 인류학자 되기. 한국문화인류학, 29(1), 118

윤택림(2005). 문화와 역사연구를 위한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 도서출판 아르케, 139-140

장진(2007).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직무만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29, 825-836

전향(2008). 골프장 이용고객의 이용형태에 따른 만족도 조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체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우진·최성범(2005). 골프캐디의 직무만족과 이직성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23

조용환(2002). 질적 연구 방법과 사례. 서울 : 교육과학사.

최순임 (2000).골프장 경기 보조원의 실태와 최근의 동향. 경기 보조원에 대한 근로 기준법 적용과 성차별적 조기정년에 관한 긴급토론회. 전국여성노동조합·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4-12.

한국정책개발원(2002). 문화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체성 연구, p49-50

한이석(2004). 현대스포츠사회학. 서울 : 형설출판사. 171

한태룡(2003). 테니스 동호인의 하위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허미화(1994). 질적 사례 연구법. 서울 : 양서원

강원일보(2009. 3. 3일자) 취업 난 속 골프장 남자캐디 인기 상한가

Collection @ chosun

http://www.kwnews.co.kr/ view.asp?aid=209030200049&s=501
공식세계골프랭킹(2008). http://www.owgr.com/rankings/default.sps
네이버 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707&docId=524
대한골프협회. http://www.kgagolf.or.kr/introduction/intro_1.asp
두산백과사전. http://www.encyber.com/index.html
매일경제(2007.11. 5일자). 골프장캐디 귀하신몸됐네, http://news.mk.co.kr
매일경제(2007. 5. 29일자). 남자캐디가 늘고 있다,http://news.mk.co.kr
매일경제(2007. 12. 13일자). 회원제 골프장 속속 퍼블릭으로,http://news.mk.co.kr
레져신문(2003. 7. 9일자). 캐디학교 설립 전문화 바람직, http://www.golftimes.co.kr/
위키백과(2009. 5. 7) 문화란?, http://ko.wikipedia.org/wiki/%EB%AC%B8%ED%99%94
일간스포츠(2005. 1.26일자) 캐디 전문직 정착 내세운 한국캐디골프협회 발족,
http://isplussvc.joins.com/asp/articles.asp?aid=274717&contcode=01040104
일간스포츠(2005.9.25일자).캐디피가비싸서골프못치겠다구요? http://isplus.joins.com/
일간스포츠(2007. 7. 8 일자). 캐디도 전문화 시대…국내 전문 캐디 1호 지은희씨,
http://isplus.joins.com/sports/golf/200707/08/20070708200027803601040000010
4010001040101.html
일간스포츠(2007. 10. 24 일자) <오감자의 맛있는 골프> 여성골퍼에게 봉변당한 남캐디,
http://isplus.joins.com/sports/golf/200710/24/
20071024103143230601040000010405000104050 1.html
서울신문(2006. 8. 12일자).[주말탐방] 남자캐디의하루, http://www.seoul.co.kr//news/
newsView.php?code=seoul&id=20060812005003&keyword=주말탐방
조선.컴(2008. 6. 23일자). [새연필] 캐디연봉 평균 2331만원…학습지교사,1932만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6/23/2008062301710.html
중앙일보(2008.2.13일자). 지난해 골프장 내장객 2,234만명, http://article.joins.com/
파이낸셜 뉴스(2008.2.21). 제주도 골프장 위기론 네 탓' http://www.fnnews.com/
한겨레신문 (2002. 03. 11 일자 기사) 늘어나는 여성 골퍼"남자캐디 없나요."
http://www.hani.co.kr/section-006005001/2002/03/006005001200203111044001.html

Collection @ chosun

한국골프장경영협회. http://www.kgba.co.kr/
한국중고등학교골프연맹. http://www.kjga.or.kr/rule/01.asp
GMI골프경영연구소. 명문캐디교본, 서울GMI 미디어

Burke, P. J.(1991). Identity precesses and social stress, Journal of sociology, 66(4),325-334
Erikson, E. H.(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Impian Golf & country(2008). http://www.igcc.com.my/html/awards.html
Jennifer mason(2006). Qualitative researching(2nd ed), London, SAGE Publications,62
Joseph A, Maxwell(2005). Qualitative Research Design : An Interactive Approach (2nd ed), Thousand Oaks, CA : SAGE Publications, 22- 23, 94
John W. Cresswell (1994). Research design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pproaches, Thousand Oaks, CA : SAGE Publications, 148
John W. Cresswell (2007).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Traditions(2nd ed), Thousand Oaks, CA : SAGE Publications, 68-69, 93-94.
John W. Loy, Barry D. Mcpherson, Gerald Kenyon(1978). Sports and social systems ; A Guide to the Analysis, Problems, and Literature, Reading, Massachusetts, Menlo park, California :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181-190.
Nixon, H(1992). A social network analysis of influences on athletes to play with pain and injuries. Journal of Sport and Social Issues, 16, 128.

Collection @ chosun

<부록 1. 개방형 질문지>

최근에 우리나라 골프장에 남자캐디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남자 캐디들만의 특유한 문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남자캐디의 정체성과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입니다. 이 자료는 본인의 골프문화 연구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성명 또한 가명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남자캐디문화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세하게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선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연 구 자 : 윤 경

E - Mail : yy1025@hanmail.net

▷성 명 : ▷나이 : ▷캐디경력 :

1. 남자캐디의 **개인적 특**성은 어떠한가?

1) 캐디가 된 동기 :

2) 앞으로 목표 :

3) 골프경력(실력) - 앞으로 배우고 싶은지? 년, (평균 타 정도)

4) 개인적 취미?

Collection @ chosun

2. 직업캐디로 **적응과정**은 어떠한가?

1) 직장 내 여자캐디들과의 관계(배타적 또는 우호적 시각?)

2) 골퍼들과의 관계 (골퍼들과 어떻게 적응하며, 골퍼들은 남자캐디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은가?)

①남자골퍼들과의 관계

②여자골퍼들과의 관계

3) 직업으로서 캐디에 대한 인식(본인의 인식과 사회적 인식)

①나는 캐디직업을 이렇게 생각한다.

②사회에서 남자캐디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4) 직업으로 장래성은?(주변인에게 추천할만한가?)

Collection @ chosun

3. 직업으로 **캐디문화형성**(직업의식)은 어떠한가?

1) 서비스정신 :

2) 책임감 :

3) 자부심(경기에 도움?) :

4) 여자캐디와 비교해서 남자캐디만이 갖고 있는 문화는 무엇일까?

5) 본인은 캐디를 전문직업인으로 인식하는가?

4. **이직의도**는 어느 정도이며, 이유는 무엇인가? (일탈행위등)

(캐디직업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 왜?)

1) 가장어려운일

2) 규범에 벗어나는 일탈적 행위(캐디, 골퍼, 등등)

dCollection @ chosun

<부록 2. 관찰노트>

Observation Note NO.			
관찰일시 :		장소 :	
관찰주제		관찰내용	기타
골프장 현황	홀수		
	그린피		
캐디 현황	여자캐디		
	남자캐디		
	캐디피		

dCollection @ chosun

<부록3. 심층 인터뷰노트>

Depth Interview Note NO.			
연구참여자	이름; 나이; 구력; 경력; 기혼, 미혼	면담일시 :	장소 :

면담 주제	면 담 내 용	기 타
1. 남자캐디의 **개인적 특**성은 어떠한가? 1) 동기 2) 목표 3) 골프경력(실력) - 앞으로 배우고 싶은지? 4) 개인적 취미		
2. 직업캐디로 **적응과정**은 어떠한가? 1) 직장 내 여자캐디들과의 관계 (배타적 시각?) 2) 골퍼와의관계 ①남자골퍼들과의관계 ②여자골퍼들과의관계 3) 직업으로서 캐디에 대한 인식(본인의 인식과 사회적 인식) 4) 직업으로 장래성은? (주변인에게 추천할만한가?)		

Collection @ chosun

3.직업으로**캐디문화형성**(직업의식)은 어떠한가? 1) 서비스정신 2) 책임감 3)자부심(경기에 도움?) 4)여자캐디와 비교해서 고유의 문화는 가지고 있는가? 5)전문직업인으로 인식하는가?		
4. **이직의도**는 어느 정도이며, 이유는 무엇인가? (일탈행위 등) 1) 가장어려운일 2) 일탈적 행위 (캐디, 골퍼, 등등)		

Collection @ chosun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체육학과	학 번	20067340	과 정	박사
성 명	한글 윤경	한문 尹 璟	영문 Yoon Kyoung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신안모아타운 아파트 1506호				
연락처	E-mail : yk0653@naver.com				
논문제목	한글 한국 남자캐디에 대한 문화기술적 이해				
	영문 An Ethnographic understanding on korean male caddies.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과 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 이용의 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 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0) 반대( )

2009년 8월

저작자: 윤 경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